

다자녀가족 부부와 개인의 다자녀가족 강점지각에 관한 연구* - 근거이론적 접근을 중심으로 -

임 춘 희¹⁾

군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본 연구는 현재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자녀를 셋 이상 둔 다자녀가족을 대상으로 이들이 지각하는 다자녀가족의 가족강점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자녀를 셋 이상 둔 5쌍의 다자녀가족 부부와 11명의 다자녀가족 성원을 포함하여 총 21명의 다자녀가족의 성인남녀들을 면접하였다. 참여자들은 미성년의 자녀들이 있는 다자녀가족 성원으로 가족의 구성에서 초혼가족, 재혼가족, 다문화가족, 장애우가족 등으로 다양하며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또한 다양했다. 다자녀가족을 면접하고 녹음한 내용은 근거이론적 접근에 의한 질적인 분석에 의해 연구문제별로 범주화하였다. 중요한 연구결과로는 첫째, 연구참여자들은 셋째 아 출산 이후 다자녀가족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먼저 다자녀가족은 적응을 위해 '주변의 자원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며, '부부간의 친밀감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였고, 아이가 셋 혹은 넷이 된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였다. 특히 자녀가 많아지면서 부모자신의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실천적인 노력을 하였으며 '경제적인 생활안정'을 위해 참여자들 각자의 수준에서 적극 노력하였다. 이와 함께 '가족중심적인 생활방식'으로 가족의 건강성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자녀수가 많아지면서 '좋은 부모역할에 대해 학습하고 실천' 하려는 의지가 많았다. 또한 '부와 자녀간의 친밀감 증진'을 위한 노력과 함께 여성의 경우 '효율적인 시간관리'로 가족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둘째로 연구참여자들이 지각한 다자녀가족의 건강성 혹은 강점으로는 '삶에 대한 강한 의욕', '행복한 가정에 대한 열망과 의지', '가정에 대한 강한 책임감', '개인적, 인간적 성장', '행복감과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감', '가족건강성 유지를 위한 다양한 실천', '부모중압감의 감소', '부부간의 정서적, 신체적 친밀감과 강한 유대의식', '자녀들의 인성교육', '아버지의 가사와 양육행동 참여증가', '가정 현실의 긍정적 수용과 적응', '자녀양육태도상의 긍정적 변화', '가족안정성 강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자녀가족들이 여러 측면에서 많은 가족강점을 지각하고 있으며 또한 다자녀가족으로서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주요어 : 다자녀부부, 다자녀가족, 가족강점, 다자녀가족의 가족강점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9-332-C00002).

1) 교신저자 : 군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조교수 (E-mail : chlim@kunsan.ac.kr)

I. 서론

2009년도 출생통계결과(통계청, 2010)에 의하면 2009년도 합계출산율은 1.15명으로 OECD 주요국가와 비교했을 때 최저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사실상 한국은 이미 1983년 합계출산율(15~49세의 가임여성 1명이 평생 출산하는 평균자녀수)이 인구규모 유지에 필요한 대체출산율인 2.1명 이하로 하락한 이래 20년간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었으며 특히 외환위기 이후 2001년부터는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인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하였다. 2008년 출생아의 수는 46만 6천명으로 1981년 86만7천명의 약 절반수준(통계청, 2009)으로 심각한 실정이다. 이러한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환경 및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결혼연령이 상승하고 자녀출산기피현상이 지속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결혼연령의 상승과 출산 자녀수의 감소는 소득 및 고용 불안정과 일과 가정의 양립곤란, 자녀양육비용 부담 증가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의 금융경제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는(서울경제신문, 2010)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고용불안정과 주택가격상승이 남성의 결혼률을 낮춰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실증적인 자료로 제시하였다.

한국사회에서의 저출산 현상은 이미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으나 정책적 대응 노력은 2000년대 초에 들어서 본격화되었으며 2004년에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가 설치되었고 2005년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정과 아울러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족되었다. 그리하여 2006

년도에는 제 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이 수립되었고 2010년 10월 26일에는 2011년에서 2015년까지의 제 2차 기본계획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저출산에 대해 이처럼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가 대응하려는 것은 저출산의 문제는 단순한 인구감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력 감소와 성장 동력의 감소와 경제성장 하락,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인해 심각한 국가적인 문제로 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 및 그로 인한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표면상의 인구학적 요인으로는 초혼연령의 상승과 유배우여성의 출산율 감소에 기인한 것이지만 인구학적 현상이면에는 고용과 소득의 불안정, 일-가정 양립의 곤란, 육아지원기능의 미흡, 자녀양육 비용부담, 출산건강 수준 저하, 가치관 변화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우리나라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환경을 분석한 또 다른 연구(장혜경, 2007)에서는 저출산의 원인으로 자녀가 제공하는 물질적·심리적 혜택의 감소, 자녀로 인한 직접비용과 기회비용의 증가, 경제비전이 출산결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라이프스타일에서 개인주의 가치관의 증대, 양성 평등적이지 못한 사회규범의 지속 등을 주요요인으로 꼽고 있다. 특히 자녀양육 및 교육과 관련된 부담과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노동환경요인 및 여성에게 부과되는 양육환경요인은 저출산 지속의 주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화적 원인에

다른 저출산 현상이 심각해지고 그에 따른 저출산 방지 정책이 국가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중요하게 강조되는 시점에서 자녀를 셋 이상 둔 다자녀 가족은 출산률 제고에 크게 기여하는 가족으로 주목된다. 그러므로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출산과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다자녀가족에 주목하여 이들의 심리적, 경제적, 가족적 특성을 파악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는 저출산을 예방하고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거나 할 예정으로 특히 최근 들어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족을 우대하는 정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표 1 참고). 그러나 저출산 및 고령화와 관련된 그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정부의 자체평가(대한민국정부, 2006)를 보면 장기적 전망에 의한 정책 대응 지연으로 출산율의 지속적 하락을 초래했으며, 범부처적으로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여 효율적인 정책효과 발휘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중산층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의 부족으로 국민 전체에게 주는 저출산 대책의 체감도가 낮았다. 특히 저출산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종합적인 시각의 결여와 재원의 한계로 저소득층 위주로 추진되었다는 부분은 사회경제적 혹은 문화적으로 중요한 사회의 축을 이루는 중산층의 출산률을 특히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상기시킨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정책의 효과성과 관련된 또 다른 실태 분석(이삼식 등, 2008)에서도 영유아보육·교육비 지원정책의 세부사업(차등보육·교육비지원, 5세아 무상보육·교육비 지원, 두 자녀 이상 가구 보육·교육비 지원 등)

모두 여전히 일부 저소득층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며,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과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도 저소득층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출산 정책이 출산률 제고라는 인구정책적 목적보다는 저소득층 복지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출산률 제고라는 정책의 효과성도 일부 계층에 한정하여 나타날 수 있음이 지적되었다. 저출산 정책 담당공무원과 가족정책관련 전문가집단의 대상으로 정부의 저출산대책의 가족 영향평가를 살펴본 연구에 의하면(장보현 등, 2006) 평가자들은 저출산 대책에서 다양한 가족형태와 지역적 차이를 고려한다거나 저출산 정책 및 프로그램의 개발, 실행, 평가 과정에 출산당사자나 가족들이 참여하는 등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효과는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대한 평가들을 살펴 볼 때, 저소득층 중심의 출산지원정책이나 경제적인 지원의 유인책으로 출산을 유도하는 방향의 이면에는 출산과 자녀양육비용을 지원하면 출산률이 증가할 것이라는 단순한 경제논리가 내포되어 있으며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보다 근본적이고 정신적이고 가치관적인 측면은 간과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저소득계층의 출산률 제고에 치우친 정책으로의 경향을 보인다. 대중매체에서도 자녀양육과 교육에 드는 비용을 강조하여 자녀 1명당 대학졸업까지의 비용이 2억이 넘는다는 등의 보도(동아일보, 2011.1.4)를 통해 사교육비 경감의 당위성을 거론하면서도 출산과 양육에 대한 일반인들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위기의식을 오히려 부추긴다. 그러나 출산과 양육의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논리만이 작용하는 문제가 아니며 출산과 양육을 결정하는 개인과 가족의 정신적인 신념과 태도를 포함하는 매우 복잡적이며 가치관이 작용하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출산과 양육의 비용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과 더불어 출산과 자녀양육 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와 장점을 부각시키는 정신적이고도 가치관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향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즉,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과 형태의 다자녀가족을 포함시키면서 다자녀가족으로 만족하게 생활하는 가족들에 대해 보다 집중적으로 그러한 가족의 건강성이나 강점에 대해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출산정책이 단순히 인구수를 늘려야 한다는 인구정책 목적의 관점으로만 추진되기 보다는 사회구성원인 개인들이 자녀출산과 양육을 통해 개인적이고도 내적인 욕구충족과 만족감, 그리고 심리적 건강성을 가질 수 있도록, 다자녀가족의 긍정적인 경험들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여 출산과 양육 친화적인 가족가치관으로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저출산정책에서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모계 3세대의 자녀에 대한 가치관을 비교 연구한 결과(권용은, 2003)에 의하면 자녀에 대한 가치는 자녀출산과 자녀지원과 부모지원에 중요한 매개변수로 아들에 대한 선호가 점차 줄어들고 딸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였다고 한다. 또한 긍정적 자녀가치에 있어서 도구적 가치는 점차 낮게 지각하고 정서적, 사회적 가치를 점차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부정적 자녀가치보다는 긍정적 자녀가치를, 개인주의보다는 집단주의를 높게 지

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족학이나 심리학의 최근 연구경향을 볼 때 개인이나 가족생활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문제중심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보기 보다는 보다 건강한 측면, 장점 혹은 강점을 파악하려는 시도로 가족의 건강성, 개인의 안녕감 혹은 행복을 강조하는 긍정심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가족학의 분야에서는 건강가족, 가족건강성 혹은 가족강점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한 건강가족적 관점(Family Strength Perspective)이 주목받고 있으며 심리학의 분야에서는 행복이나 심리적 안녕 같은 인간의 긍정적인 정서와 인간의 강점과 잠재력 요인들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둔 긍정심리학(positive psychology)이 주목을 받고 있다(Compton, 2005). 이러한 학문적 경향들을 고려할 때 한국의 가족변화가 급격하고 다양한 가족문제들이 부상하고 있으나 가족의 건강성과 강점 그리고 긍정적인 요인들을 찾기 위한 노력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

가족의 건강성 혹은 가족의 강점(family strength)을 강조하는 건강가족적 관점은 부부와 가족이 왜 실패했느냐 보다는 어떻게 성공했는가에 초점을 두며 이러한 관점은 가족생활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다른 가족의 모델로 소용될 수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DeFrain & Stinnett, 2002). Olson과 DeFrain은 건강한 가족은 가족원 간의 상호작용의 질이 개인의 심리적 안녕(psychological well-being)에 기여하는 가족이라고 정의하고 건강가족은 가족의 외적 구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가족원 상호 간의 내적 과정에 중점을 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유영주 등, 2009). 건강가

표 1. 정부의 저출산 예방 및 다자녀 우대 대책의 내용

저출산 대책을 위한 정책	대상 및 내용	비 고
무상보육 및 보육비 지원	차상위계층에서 소득 하위50%	09년07월 시행
차등 보육·교육비 지원확대	월평균소득 396만원(4인 가구 기준)이하 가정의 만0~4세 아동이 어린이집, 유치원 등 육아지원시설 이용 시 자녀의 연령과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비와 교육비 지원	
2자녀 이상 보육·교육비 지원	월평균 소득396만원(4인 가구 기준)이하 가정의 두 자녀이상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육아지원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 부터 보육비·교육비를 연령별 정부지원단가의 50%까지 추가로 지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비	차상위계층 0~1세에 대해 월 10만원	09년07월 시행
출산 전 진료비 지원	모든 임신부에게 산전 진찰에 드는 진료비(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형태로 1인당 20만원 지원)	08년12월 시행
영유아 국가필수 예방 접종 지원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하는 0~12세 아동의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 시 비용의 일부(회당 평균6천원)를 지원	09년03월 시행
불임시술지원 확대	1회 시험관 아기 시술 비용의 50% 수준인 150만원을 2회-3회 지원확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70만원씩 3회까지 지원)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학교에 개설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는 연간 30만원 내외의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	
불임부부 시험관 아기 시술 비용 지원	월평균 소득448만원(2인가구 기준)이하의 불임가정(만44세 이하 여성)에 1회 시험관 아기 시술 비용의 50%수준인 150만원씩 3회까지 지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70만원씩 3회까지 지원	
임산부 철분제 지원	모든 임신부에게 임신 5개월부터 분만 전까지 보건소에서 지원	
의료기관의 출산시 출산비 지급	월평균소득 265만원(4인 가구 기준)미만 가정의 임신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평가 실시하여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최장 1년간 월 2회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식품패키지 제공 * 159만원 미만(4인 가구 기준): 전액무료 * 159-265만원(4인 가구 기준): 대상자에게 보충 식품비 10% 자부담 부과	
산모도우미 서비스	월 평균 소득195만원(4인 가구 기준)이하 출산가정(유산 및 사산 포함)에 대하여 2주(12일)동안 산모도우미 파견, 산모, 신생아 관련 가사활동 도우미 *쌍생아 산모는 3주(18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 산모는 42주(24일)	
출산 축하금 지원	출산 축하금 지급	일부 지자체 (광역시9, 기초136)

표 1. 정부의 저출산 예방 및 다자녀 우대 대책의 내용

〈계속〉

산전 후 휴가	취업여성은 출산전후로 90일간의 산전후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여성근로자가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을 경우에도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 받음 (일하는 여성의 산전후 휴가기간 동안 통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고용보험이 기업의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근로자는 3일간의 무급 출산휴가	
육아휴직	'08년 1월 출생아부터 자녀가 만 3세가 될 때까지 육아휴직(1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 중 고용보험에서 월 50만원씩 받을 수 있다	
입양아가정 지원	입양수수료 전액을 지원하며 만 13세 미만의 입양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 장애아 입양가정의 경우 양육보조금(월55만원) 및 의료비(연 252만원)을 추가 지원	
다자녀가정 주거 안정 지원	국민임대주택 경우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로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에 대하여 건설상의 20% 범위 내에서 우선 입주권 부여됨.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는 근로자·서민주택 구입자금대출시 일반가구에 비해 0.5% p 우대금리 적용. 지역에 따라 주택구입은 최고 1억 5천만 원 전세자금은 8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	
3자녀 이상 가구의 전기요금 감액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3자녀 이상 가구의 전기 요금을 전기사용량(월 300kwh 초과-600kwh이하)에 따라 최고 54,070까지 감액 받을 수 있음	
다자녀 추가공제제도	연말정산시 자녀 한 명당 150만원이 기본 공제되며 만약 자녀가 6세 이하이면 1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됨. 2자녀 이상 가정은 둘째는 50만원 셋째부터는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음	07년1월 시행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2008년 1월1일 이후 태어난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둘째아이를 낳으면 1년 셋째아이부터는 1인마다 1년 6개월 동안(최장 50개월) 연금 보험료를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	08년1월 시행
다자녀 가족우대카드	2·3명 이상의 자녀를 부양하는 다자녀 가구는 다자녀 가족우대카드를 발급받아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은 대형마트, 금융기관, 문화시설 등을 이용 시 할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광역자치 단체별 기준 상이
다자녀 가족 세제 지원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50%경감 승용차(2000cc 이하, 승차정원 7·10인승)/ 승합차(15인승 이하)	

출처: <작은 배려, 큰 감동>, 보건복지가족부 (2009)

족의 특징에 대해 Stinnett과 DeFrain은 미국과 세계 27개국의 가족에서 나온 자료를 통해 건강가족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여섯 가지 중요한 특징들로 감사와 애정, 헌신, 긍정적인

의사소통,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기, 정신적인 안녕, 스트레스와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을 꼽았다(Olson & DeFrain, 2006). 한국의 경우, 유영주(2004)의 연구에서 건강가족의 특성으로

가족원에 대한 존중, 유대의식, 감사와 애정, 긍정적인 의사소통, 가치관 목표 공유, 역할충실, 문제해결능력, 경제적 안정, 사회와의 유대 등을 제시하였다.

가족건강성과 관련된 국내의 연구들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유영주(1991)의 연구를 시작으로 하여 어은주와 유영주(1995)의 한국 가족의 건강도 척도개발 연구가 기폭제가 되면서 건강가족 혹은 가족의 건강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이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먼저 가족건강성을 주제로 한 연구들의 연구대상을 볼 때 아동이나(윤연정 등, 2007; 한영숙, 2006)이나 청소년(오명희 등, 2007; 권대희, 2003; 안인영, 2005; 박선이, 2006), 혹은 대학생(김정은, 2006; 양주애, 2005), 주부(어은주, 1996), 그리고 맞벌이교사(최정혜, 2006), 기혼남녀(전서영 등, 2008; 황인실, 2004) 주말부부(최정혜, 2004), 농촌부부(양순미 등, 2004), 정신질환자가족(박효순, 2004), 치매노인 주부 양자(박의현, 2006) 등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연구방법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의 연구에서 어은주(1995) 혹은 유영주 (2004)가 개발한 가족건강성 척도나 FACES같은 외국의 척도 혹은 이러한 척도를 다소 수정한 척도를 사용한 설문지 조사와 같은 양적인 조사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을 검토해볼 때, 연구대상으로서 다자녀가족에 대한 연구가 크게 부족하다. 이와 함께 모든 가족은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가족강점은 가족생활에서의 여러 가지 도전에 대한 반응으로 발달된다는 건강가족적 관점의 기본 명제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자녀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을 고

려할 때 다자녀가족의 가족강점을 규명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가족의 건강성 혹은 강점에 대해 종전의 계량적인 연구 방법과는 달리 내부자의 관점에서 가족의 의미, 가치관, 가족강점을 접근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자녀들의 관점에서 다자녀가족은 역동적인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는 형제관계를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과 같이 형제 수가 줄어든 산업사회에서 형제관계는 전 산업사회에 비해 형제관계의 중요성이 크지 않으며, 형제관계도 의무적이기 보다는 선택적이며 형제를 돌봐야 하는 의식이나 의무감도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형제관계는 부모관계 다음으로 중요한 가족관계로 아이들은 형제관계를 통해 부모에게서 채우지 못한 사회적·정서적·지적 욕구를 채우거나(보상가설), 혹은 부모나 자녀간의 긍정적인 관계가 다시금 자녀끼리의 형제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일치가설)고 가정되었으며 이러한 가정들은 실제로 연구들을 통해 입증되었다(Sanders, 2004). 일반적으로 형제관계는 인간의 삶 동안 가장 오래 지속되는 가족관계로, 평생을 함께 하며 인간은 형제관계를 통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관계의 원형들을 연습하고 시험해 보는 장을 제공받는다(전귀연 등, 2006). 출산율과 자녀수의 감소로 인해 한 자녀를 둔 가정이 많아지는 사회적 현상 속에서도 형제관계는 더욱 중요성을 띠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이유로는 첫째, 과거에 비해 형제수가 줄어들어 따라 형제간 상호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될 수 있다. 둘째, 평균수명이 연장되는 노령

화사회로 갈수록 노년기의 형제관계는 중요한 지지체계로 자리하며, 지리적 이동과 여성의 취업증가로 인해 형제간의 의존성과 돌봄 행위가 더욱 많아지고 필요해지기 때문이다(전귀연 등, 2006). 형제관계는 정지되어 있지 않으며 생의 주기에 따라 변화, 발전하는데 영유아기 형제관계에서는 특히 형제간의 애착형성으로 정서적 안정성과 친밀감을 제공해주며, 특히 손위형제인 경우 어린 동생과 상호작용하면서 리더십 같은 사회적 기술을 획득하고 손아래동생은 인지적 능력을 획득하는 경향이 있다.

아동기의 형제관계는 서로에게 동료로서의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학령기의 형제는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형제관계에서 배운 사회적 기술을 사용한다. 청소년기의 형제관계는 조언자 및 상담자 역할을 제공하며 성인기에는 지지자이자 격려자로서 그리고 노년기에는 특히 배우자 사망 시 중요한 지지로서 빈번한 접촉을 통해 관계를 재정립하며 생의 마지막 경험을 공유한다. 이처럼 형제관계는 형제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신체적, 정서적인 접촉을 통해 영향을 미치며 사회화의 대리인으로 서로에게 최초이자 가장 강력한 또래관계를 제공한다(전귀연 등, 2006). 형제자매와 관련된 선행 연구(박성연 등, 1993; 송민경, 2000)에 의하면 형제자매수가 많을수록 자아개념이 높고 사회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이현정 등, 2002)에 의하면 형제자매가 있으면서 형제자매수가 많을수록 아동의 사회적 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박영애 등, 1996)에서는 아동이 형제관계에서 느끼는 온정과 친밀성은

아동의 자존감에 긍정적으로, 형제갈등은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자녀의 형제관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다자녀 가족을 대상으로 한 이제까지의 연구들을 살펴볼 때, 비교적 최근 들어 다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살펴보거나(송호경, 2004), 한 자녀 및 다자녀 가정 어머니의 인식을 탐색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한 연구(김정숙, 2006),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따라 현재 자녀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연구(정혜선, 2006)와 다자녀가족의 인적자본 투자에 관한 질적 연구(문숙재 등, 2007) 등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다자녀가족에 대한 선행 연구는 크게 부족한 편이며 연구내용 또한 다자녀 가족 어머니의 양육태도나 저출산에 대한 인식, 출산동기와 교육비투자, 자녀에 대한 기대 등에 한정되어 있다. 연구대상 또한 다자녀가족의 어머니에 국한되어 다자녀가족의 형성과 유지에 공동 기여하는 남성의 시각은 배제되어 있다. 그러므로 저출산 사회에서 출산률 증가에 기여하는 다자녀가족이 스스로 지각하는 가족의 강점 또는 가족건강성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며, 다자녀가족 형성에 기여한 중요한 구성원인 남성을 연구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살펴볼 때, 그 중요성에 비해 학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밝혀진 바가 많지 않은 저출산 사회의 다자녀가족의 가족강점에 주목해야 하며, 종전의 경제적 지원 중심의 출산장려정책에서 다자녀가족의 긍정적인 강점과 가치를 지각하는 정신적인 신념과 가치관을 강조하는 전향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가족의 강점, 가족건강성을

강조하는 가족학과 개인의 행복과 안녕을 강조하는 긍정심리학의 최근 경향과 자녀의 인성발달에 영향을 주는 형제관계를 제공하는 다자녀 가족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다자녀가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질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자녀를 셋 이상 둔 다자녀가족의 가족강점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문제지향적 관점이 아니라 다자녀가족의 강점 혹은 건강성을 부각시켜 개인적 차원에서는 출산과 양육이 갖는 의미와 가치, 중요성에 대해 성찰해보고 사회적으로는 출산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정책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건강가족 혹은 가족강점에 대한 가족연구에 기여하며, 우리 사회에서 저출산 대책을 논함에 있어 경제적인 논리 일변도가 아닌 보다 인간중심적이고 가치지향적 사고의 측면을 고려하도록 인식의 전환을 도모하고자 한다. 요컨대 출산과 양육 그리고 다자녀가족에 대해 친화적이고 긍정적인 가치관의 확산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자녀가족인 부부 혹은 개인성원이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가족을 형성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며 셋째아 출산을 결정하기까지의 생각, 감정, 태도상의 변화는 어떠한가?

둘째, 다자녀가족은 다자녀가족으로서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다자녀가족 구성원으로서 어떠한 노력을 하는가?

셋째, 다자녀가족으로서 지각하는 다자녀가

족의 강점 혹은 건강성은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 참여한 다자녀가족의 구성원은 적어도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5 쌍의 부부와 11명의 개인을 합하여 총 21 명으로 성별로는 남성이 6명, 여성은 15명이었으며, 연령은 30대와 40대가 대부분이며 모두 세 명 이상의 자녀들을 두고 있었다(표 2 참고). 이들의 학력은 중졸(1명), 고졸(6명), 대졸(8명), 대학원 재학 중(2명), 대학원졸(4명)까지 다양하며 본인들이 밝힌 생활수준 또한 상(5), 중(5), 중상(5), 중하(5), 하(1)에 걸쳐있다. 거주 지역으로는 서울, 용인, 전주, 군산, 진안, 서천 등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촌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 참여한 다자녀가족은 거주지역이나 직업, 학력, 생활수준의 배경에서 다양하며, 일반 양친가족으로 다자녀인 가족뿐만 아니라 장애자녀가 있거나 부모자신이 장애가 있는 가족, 재혼가족, 다문화가족이면서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특성을 가진 다자녀가족들이라 할 수 있다. 연구에 참여한 다자녀가족의 특성이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성을 보이는 것은 연구자가 개인적으로 알거나 주위의 소개를 받아 참여자를 물색한 원인도 있으나, 의도적으로 다자녀가족이라 하더라도 사회 인구학적 배경이나 가족구성이나 형태에서 다양성을 확보하여 다양한 특성을 가진 다자녀가족의 강

점을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2. 연구절차

본 연구를 위한 면접조사는 2009년 8월 20일부터 2010년 4월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연구에 참여할 다자녀가족을 눈덩이표집법으로 물색하였다. 먼저 자녀를 셋 이상 둔 연구자의 지인이나 주위 사람들의 소개를 받은 사람에게 연구 참여의사를 타진한 후, 연구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다자녀를 둔 부모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개별면접을 하였으며 배우자면접을 수락한 경우에 한하여 부부면접을 하였다. 그러나 배우자면접이 어려운 경우는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여성, 남성 개인별로 면접하였다. 참여자를 찾는 과정에서 다자녀가족이라 하더라도 자녀수의 기준만 동일할 뿐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여, 단순히 도시 중산층으로 부부가 초혼인 다자녀가족만이 아니라 가능한 다양한 계층과 특성을 포함하는 다자녀가족을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면접은 보통 2시간 정도로 진행되었으며 면접내용은 모두 녹음하여 녹취하였고, 보충이 필요한 경우 추후면접을 하거나 전화나 설문지를 통한 응답 자료를 사용하였다. 단, 연구에 참여한 사람 중에서 언어장애와 청각장애가 있던 여성의 경우 수화통역자를 통하여 응답내용을 기록하여 자료로 사용하였다. 면접은 참여자의 집이나 사무실, 공원, 연구실 등 다양한 장소에서 진행되었으며,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개인별로 문화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사례를 하였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21명의 다자녀가족 성원을 면접, 녹음한 내용을 분석하였는데 자료 분석의 방법으로 Strauss와 Corbin(1990)의 근거이론적 접근에 의해 먼저 개방코딩을 하였다. 개방코딩을 위해 먼저 각 사례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고 사례 간에 비교를 통해 개념을 확인하고 명명하였는데 분석과정에서 많은 개념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들을 하위범주로 통합한 후, 하위범주들은 다시 범주로 축약하면서 범주들 간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축코딩 과정을 시도하였다.

III. 결과 및 논의

다자녀가족 부부와 개인이 다자녀 가족의 장점 즉 건강성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총 21명의 다자녀가족 성원의 면접내용을 Strauss와 Corbin이 제시한 근거이론적 분석틀(Creswell, 1998)에 따라 개방코딩과 축코딩을 하였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이 정리하였으며 그림 1은 이를 도식화한 것이다. 여기서 중심현상 이라함은 자녀가 셋 이상을 둔 다자녀가족이 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셋째 자녀를 갖게 되었을 때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 들었는지를 질문한 것에 대한 응답을 종합적인 범주로 나타낸 것이다. 인과적 조건은 다자녀가족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준 인과적 조건이나 사건을 의미하는데 이는 바로 첫 번째 연구문제와 관련된다. 다자녀가족의 시작이라는 중심현상에 대한 반응으로 대응전략이 생

기게 되는데 이를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 표현하였으며 이는 두 번째 연구문제와 직결된다. 그런데 이러한 전략을 형성하는 데는 개인과 가족의 특정한 맥락적 조건과 중재적 조건이 영향을 미치는데 중재적 조건은 맥락적 조건보다는 보다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아의 출산으로 형성된 다자녀가족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을 통해 다자녀가족 성원은 다자녀가족의 강점을 지각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데 표 3과 그림 1에서 결과로 지칭되었으며 이는 세 번째 연구문제의 규명과 관련된다.

1. 다자녀 가족의 형성동기와 셋째아 출산결정까지의 변화

먼저 연구 참여자들이 다자녀가족을 이루게 된 구체적인 상황을 사례별로 표 2와 같이 살펴볼 때, 사례 1과 2의 경우 딸 셋을 둔 도시중산층의 다자녀가족의 부부로 부인은 전업주부이고 남편이 장남이 아니므로 굳이 아들을 낳을 이유가 없었으나 단지 피임의 실패로 다자녀가족이 된 경우이다. 사례 3과 4는 위로 딸 둘을 두었으나 장남가족으로, 부모님의 아들에 대한 기대와 본인들의 다자녀가족에 대한 계획으로 이후에 자녀 둘을 더 두어 다자녀가족이 된 경우였으며 부부 모두 일을 하고 있다.

사례 5와 6은 원래 아들과 딸 모두 두 자녀를 두었으나 아들이 사고로 시각장애자가 되면서 아들출산에 대한 기대를 막연히 갖던 중에 피임실패로 인해 자녀를 갖게 되어 다자녀가족을 이루게 되었다. 사례 7과 8의 경우 귀

농가족으로 딸을 셋 두고서 장남이었지만 더 이상 출산을 생각하지 않았으나, 피임실패로 자녀를 갖게 되고 출산을 결정하여 네 자녀를 둔 다자녀가족이 되었다. 사례 9와 10의 경우 남편이 자녀 없이 이혼하여 재혼한 농촌의 다문화가정의 부부로, 남편은 셋째자녀의 출산을 원치 않았으나 다자녀가족을 원한 일본인 부인이 고집하여 자녀를 출산하여 다자녀가족이 되었다.

사례 11은 본인이 장남으로 이미 아들 쌍둥이를 두어 더 이상 자녀를 계획하지 않았으나 피임실패로 자녀를 계속 갖게 되어 네 자녀를 두게 되었다. 사례 12도 전문직 여성으로 남편이 차남이고 이미 아들을 두 명 둔 상황이어서 더 이상 계획하지 않았으나 피임실패로 연년생으로 자녀를 포함하여 아들 셋을 두게 되었다. 사례 13의 경우 남편이 장남으로 딸만 둘이 있는 것에 대한 부모님의 아들기대와 피임실패로 임신을 하게 되고 아들을 낳아 세 자녀 가족이 되었다. 사례 14의 경우 자신의 모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한국남성과 결혼한 다문화가정으로 남편이 장남이 아니어서 아들출산에 대한 압력도 없었으나 본인이 평소 다자녀를 원하였고 피임을 하지 않아서 자녀를 갖게 되어 다자녀가족이 되었다.

사례 15의 경우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짓는 농촌가족의 여성으로 남편이 장남이 아니며 이미 네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으나 피임을 하지 않고 평소 아이가 생기면 낳는다는 생각으로 다섯째 자녀를 임신하여 출산을 앞두고 있었다. 사례 16의 경우 류마티스를 앓아 다리가 불편한 전업주부로 첫 아이를 낳고서 류마티스를 앓기 시작하였으나 매번 제왕절개로

표 2. 연구에 참여한 다자녀가족 구성원의 특성

사례 번호	성별 (나이)	자녀	직업	학력	생활 수준	출산이유	비고	단산여부
사례 1	남 (45세)	딸 셋 (12세, 8세, 4세)	자영업	대졸	중상	피임실패	부부 남편막내 (초혼가족)	제왕절개 단산안함, 남편피임
사례 2	여 (43세)		전업주부	대졸				
사례 3	여 (32세)	딸 둘(7세, 6세) 아들 둘(4세, 3세)	강사	대학원졸	상	부모의 아들기대, 원래 다자녀계획	부부 남편 장남이자 외아들 (초혼가족)	자연분만, 남편이 단산수술
사례 4	남 (35세)		사무직	대졸	상			
사례 5	여 (41세)	아들 (시각장애14세), 딸(13세), 아들 쌍둥이(7)	어린이집 원장	대학원재 학	중상	장남의 장애사고로 아들 기대, 피임실패	부부 남편장남 (초혼가족)	자연분만, 부인이 단산수술
사례 6	남 (44세)		어린이집 공동운영	대졸				
사례 7	남 (41세)	딸 셋(13세, 11세, 9세) 아들(3세)	축산업	대졸	중	피임실패, 막연한 아들기대	부부 남편장남 (초혼가족, 귀농가족)	자연분만, 부부모두 단산안함. 남편피임.
사례 8	여 (39세)		전업주부	대졸				
사례 9	여 (38세)	딸(8세, 7세) 아들(5세)	강사	고졸	중하	피임안함 부인의 출산의지	남편장남 (남편이재혼, 다문화가족)	자연분만, 단산수술안함, 여성이피임
사례 10	남 (43세)		사무직	고졸				
사례 11	남 (39세)	아들쌍둥이(11세), 아 들(9세), 딸(7세)	전문직	대학원졸	상	피임실패	본인 장남 (초혼가족)	부인자연분만 본인이 단산수술
사례 12	여 (41세)		전문직	대학원졸	상		남편차남 (초혼가족)	자연분만 본인이 단산수술
사례 13	여 (42세)	딸(14세, 12세) 아들(10세)	어린이집 운영	대학원졸	상	피임실패 아들기대	남편장남 (초혼가족)	제왕절개, 남편이 단산수술
사례 14	여 (36세)	딸 둘(10세, 8세) 아들(6세)	강사, 통역 아르바이트	대학졸	중하	막연한 다자녀기대, 피임안함	남편이 둘째 (초혼가족, 다문화가족)	제왕절개, 부부 둘 다 단산안함,
사례 15	여 (38세)	딸(15세, 12세, 9세), 아들(6세), 임신중	농업	고졸	중하	피임안함, 다자녀 선호	남편둘째 (초혼가족, 농혼가족)	자연분만, 부부 둘 다 단산안함
사례 16	여 (40세)	딸 셋 (14세, 11세, 7세)	전업주부	고졸	중하	피임안함	남편 장남 (초혼가족)	제왕절개함. 단산수술안함, 남편이 피임
사례 17	여 (34세)	딸(10세, 7세), 아들(4세)	전업주부	중졸	하	피임실패	남편 장남(초혼가족, 부부모두 언어, 청각장애자)	자연분만, 단산수술안함, 본인이 피임
사례 18	여 (41세)	아들 (13세, 11세, 9세)	사무직	대졸	중	피임실패	남편 장남 (초혼가족)	자연분만, 단산수술안함. 본인이 피임
사례 19	여 (48세)	본인의 아들(22), 딸(17) 남편의 딸(23세), 아들(20세) 재혼후 자녀(12)	자영업	대졸	상	본인과 재혼한 배우자가 원함	재혼한 남편이 장남(부부 모두 재혼)	자연분만, 재혼후 자녀출산후 단산수술
사례 20	여 (38세)	딸 (13세, 11세, 7세)	판매업	고졸	중	낙태포기	남편이 장남 (초혼가족)	제왕절개 본인이 단산수술
사례 21	여 (39세)	아들 (13세, 12세, 8세)	판매업	고졸	중	피임실패	남편이 장남 (초혼가족)	자연분만, 남편이 단산수술

자녀를 출산하여 세 딸의 다자녀가족을 이루었다. 현재 남편이 피임을 하며 만약 임신이 되면 자녀를 출산해야 한다는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다. 사례 17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농아이며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로 피임을 하지 않아 딸을 셋 둔 다자녀가족이다. 매번 자녀 출산시에 장애에 대한 우려는 있었으나 자녀들은 모두 정상적이다. 그러나 생활형편이 어려우며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 수화통역센터의 도움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사례 18은 남편이 장남이지만 이미 아들을 둘 두어서 계획하지 않았으나 피임실패로 자녀를 두게 되어 아들만 셋을 두게 된 경우이다. 사례 19는 본 연구에 참여한 사람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여성으로 이미 본인의 자녀가 둘이 있고 배우자의 자녀도 둘이 있는 상태에서 재혼하여 본인이 간절히 원하여 재혼가정에서 자녀를 출산하여 모두 다섯 명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족이 되었다. 사례 20은 남편이 장남이었으나 아들에 대한 기대도 없고 더 이상의 자녀계획이 없던 상황에서 피임실패로 자녀를 갖게 되어 딸을 셋 두게 되었다. 사례 21의 경우도 남편이 장남이지만 이미 아들이 둘이어서 더 이상 자녀를 계획하지 않던 차에 피임실패로 자녀를 갖게 되어 아들만 셋을 두게 되어 본의 아니게 다자녀가족이 되었다.

이러한 사례들의 경우를 살펴볼 때 자녀를 셋 이상 두어 다자녀가족을 이루게 된 계기는 피임실패나 무피임으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배우자가 장남인 경우 셋째아에 대한 아들기대가 있긴 해도 매우 적으며 장남이라 해도 아들이 없으면 두 자녀로 만족하고자 했던 경우도 있었다. 사례들로 볼 때 다자녀가족이

되기 이전부터 다자녀에 대해 긍정적이었다고 표현을 한 경우도 일부 있었으나 적극적인 출산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셋째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비교적 적었다. 피임실패나 피임에 대한 방심, 그리고 막연한 아들기대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셋째아의 임신을 받아들인 대부분의 사례와는 달리 본인이 피임을 생각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주위의 압력을 의식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자녀를 적극 원해서 가진 경우는 네 사례(사례9, 14, 15, 16) 정도라 할 수 있다. 즉 부부가 피임을 안 하고 남편이 셋째아의 자녀출산을 반대하며 낙태를 권했으나 다자녀가족을 희망하였던 본인들의 의지로 출산을 결정한 다문화가정의 여성들(사례 9, 사례 14)과, 남편이 장남이 아니고 이미 아들을 포함해 네 자녀가 있지만 자녀들이 많은 것이 좋고 행복해서 피임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녀를 갖고 출산하려는 농촌여성(사례 15), 이미 전혼에서 낳은 두 명의 자녀를 함께 데리고 재혼하여 이미 아들 둘과 딸 둘 양쪽으로 모두 네 명의 전혼자녀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었으나 새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갖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다소 늦은 나이에 자녀를 출산한 재혼여성(사례 16)의 경우는 어떠한 다른 의도나 수동적인 선택이나 주변의 압력이 없이 가장 자발적이고 적극적이며 순수한 동기에서 본인 스스로 다자녀가족을 선택했다고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이 다자녀가족을 형성하게 된 동기는 크게 ‘의도적인 출산계획’과 ‘출산에 대한 무계획 내지 피임실패’ 그리고 ‘피임과 출산에 대한 방심’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그

표 3. 근거이론에 입각한 다자녀가족 강점 축 코딩 분석

축	범 주	하 위 범 주
인과적 조건	의도적인 출산계획(막연한 의도/계획한 의도)	아들 선호, 다자녀 기대, 종교적 신념
	출산에 대한 무계획, 피임실패	피임준비부족, 원치 않던 임신
	피임, 출산에 대한 방심	생명존중, 종교적 합리화
중심현상 (다자녀 출산과 다자녀 가족형성)	불안, 걱정	자녀양육, 사교육비, 직장생활
	당황, 출산에 대한 고민	출산과 낙태 선택 고민
	위기감	자녀양육으로 인한 개인생활 희생, 직업생활에서 뒤처지는 것에 대한 우려
	자책감	피임실패, 사전통제 못한 것에 대한 자책.
	기대감	셋째 자녀로 인한 가족생활변화에 대한 기대
	긍정적 합리화	긍정적 수용, 운명으로 수용, 종교적 의미해석
	기쁨, 만족감, 성취감	원하던 임신, 출산에 대한 만족감
맥락적 조건 (전후관계)	남아출산에 대한 기대	장남가정 혹은 비장남 가족으로 아들 없는 경우 셋째아 남아에 대한 기대고조
	가족의 생활환경변화	귀농, 유학, 건강호전
	다자녀선호에 대한 개인적, 가족적 배경	형제가 없거나 형제가 많았던 모의 경험으로 다자녀선호, 남편형제의 무자녀로 인한 다자녀선호, 막연한 다자녀 선호, 장애자녀, 장애부모, 형제가 없거나 많았던 개인적 배경,
	여성의 신체건강 자신감	초산연령이 빠름, 신체적 회복이 빠름, 출산 후유증이 적음, 건강에 대한 기본적 자신감, 문제가 없었던 이전 출산경험, 늦지 않은 초산연령
	부부의 높은 결혼만족도	부부의 친밀감과 결혼만족도가 높은 상황
	여성의 강한 출산의지	최종 결정권자인 여성의 출산의지 강함
중재적 조건	다자녀에 대한 부부의 긍정적 인식	다자녀가족에 대한 오래된 선호
	개인적인 인성적 특성	아이를 좋아함, 아이출산과 양육에 긍정적 의미부여, 용기, 인내심
	출산과 양육에 대한 비경제적, 인간중심적 가치관	출산과 양육비용보다 개인적 가치관 중시, 생명존중사상, 종교적 신념, 자녀출산과 양육에 대한 즐거움 인식으로 임신을 반깁,
	가족의 경제적 자원	경제적으로 여유 있음
	자녀출산과 양육위한 경제적, 대인적 자원 확보	친정부모의 양육지원, 시부모의 경제적 지원 경제적 여유, 양육 도와줄 사람 확보
작용/ 상호작용 (전략)	주변의 자원과 지원의 적극적인 활용	여성의 친정, 시가부모의 도움 적극 요청
	부부간의 친밀감과 협력 강화	부부만의 시간, 활동, 친밀감강화
	현재 상황에 대한 긍정적 의미부여	부의 상징, 남들이 뭐래도 우리는 행복하다는 신념
	부부의 신체적 건강 노력	부부 운동시작, 건강에 신경
	경제적 생활안정을 위한 노력	직업생활에 적극 매진, 여성의 취업
	가족중심적인 생활방식	가족 전체의 규칙, 의례 개발, 가족시간,
	부와 자녀간의 친밀감 증진 노력	부 자신의 노력, 모의 의도적인 노력
	좋은 부모역할의 학습과 실천	자녀특성, 개인차 인식으로 부모역할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과 노력
	효율적인 시간관리	가정생활과 직장일의 엄격한 구분, 자신의 시간 할애

표 3. 근거이론에 입각한 다자녀가족 강점 축 코딩 분석

(계속)

축	범 주	하 위 범 주
결과 (가족 강점에 대한 지각)	삶에 대한 강한 의욕	열심히 살아야겠다, 잘 살아야겠다는 다짐
	행복한 가정에 대한 열망과 의지	자녀양육, 부부대화에 대한 적극적인 학습
	가정에 대한 강한 책임감	가정과 부모역할에 우선순위, 가족책임감 경제적 생활안정에 대한 강한 동기부여
	개인적, 인간적 성장	긍정적 자아개념, 자부심, 성취감, 자신감 뿌듯함, 난관극복의 용기, 당당함. 타인배려와 포용, 부모노고에 대한 연민 과 이해, 부성에 및 모성에 증가, 부모로서의 정체감 확립
	행복감과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감,	정신적, 심리적 안정감, 마음의 여유, 인생의 풍요로움 인식, 행복을 느끼는 순간의 증가, 재미, 웃음, 대화거리가 많아짐
	가족건강성 유지위한 다양한 실천	건강한 가족 위해 인내심 키우기, 애정표현증가, 배우자관계에서 자제와 양 보, 타협행동 증가, 가족만의 시간, 의례 개발
	부모중압감의 감소	자녀들 간의 돌봄과 우애행동
	부부간의 정서적, 신체적 친밀감과 강한 유대의식	부부 중심적 사고방식과 생활방식, 부부만의 시간을 갖기 위한 노력, 부부 간의 가치관 공유, 신체적 친밀감의 증가
	자녀들의 바른 인성교육	예의와 예절, 나이보다 성숙한 행동, 형제우애, 문제해결력
	남성의 가사와 양육행동 참여증가	남성의 배우자 이해 증가와, 가사협조증가 아버지 존재와 역할의 중요성 재확인
	가정 현실의 긍정적 수용과 적응	다문화가족, 재혼가족, 장애가족, 귀농가족의 생활 적응에 도움, 경제적 여 유가 있는 다자녀가정으로서의 만족감, 경제적 여유가 없어도 우리는 행복 하다는 만족감
	자녀양육태도상의 긍정적 변화	자녀의 개인차이 인정, 여유 있고 주관이 선 양육태도, 양육에 대한 재미와 자신감 부모로서의 정체감 증가
	가족안정성 강화	이혼에 대한 생각포기, 부부불화감소, 부부 서로에 대한 측은지심, 부부갈 등의 약화와 부재
	인척관계의 호전	고부갈등의 약화, 남편 쪽 인척과의 관계 호전

리고 참여자들이 셋째아의 임신과 출산을 둘러싸고 어떠한 감정, 태도, 사고를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출산을 결정하여 다자녀가족을 이루게 되었는지에 대한 응답내용은 곧 다자녀가족 형성이라는 중심현상의 인과적 조건으로 파악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이 의도적인 출산계획을 갖고서 셋째아 혹은 그 이후의 자녀를 가진 경우는 셋째아가 아들이길 바라는 남아 선호나 본래 다자녀가정을 꿈꾸었던 경우 혹

은 종교적 신념으로 다자녀를 선호한 경우가 있었다(사례 5, 6, 10, 14, 19). 대부분의 많은 경우가 ‘출산에 대한 무계획 내지 피임실패’로 인해 셋째아를 갖게 되었다고 밝혀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다자녀가족을 원해서 결정했다기 보다는 피임준비가 부족했거나 원치 않은 임신으로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다자녀가족을 이루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사례 1, 2, 7, 8, 11, 12, 13, 18, 20). ‘피임과 출산에 대한

방심'의 경우는 '출산에 대한 무계획 내지 피임실패'로 셋째아의 임신을 받아들인 경우에 비해서는 막연하게 아이가 많으면 좋겠다고 다자녀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셋째아의 임신을 준비하지는 않은 경우였다(사례 15, 16, 17). 선행연구에서도(강혜진, 2009) 다자녀가정 형성의 계기는 무계획에 의한 원치 않는 출산으로 이루어졌으며 다자녀 가정에서 출산의 결정적 동기는 부모의 가치관과 종교의 영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아를 갖게 된 상황에 대한 이러한 인과적 조건은 셋째아 임신과 다자녀가족을 이루게 되었다는 현실을 어떻게 자각하게 되는지에 영향을 미치는데 셋째아 출산을 결정하고 다자녀가족을 이루게 된 것 곧 중심현상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은 특히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는 여성의 경우, 정서와 태도, 사고에서 다양한 반응을 보고하였다. 표 3에서 보듯이 연구 참여자들은 셋째아 임신사실을 알게 된 순간, 불안해하고 걱정을 하였고, 당황하였으며 인공유산 가능시기 이전까지 출산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였다. 그러면서 우울증과 위기감, 자책감을 경험한다. 그러나 '출산에 대한 무계획 내지 피임실패'로 셋째아를 가진 경우 이러한 부정적인 내적 갈등을 많이 겪는 반면, 어떤 이유에서든 셋째아 출산을 적극적으로 원했던 경우는 안도감과 기쁨, 만족감, 성취감, 기대감과 같이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였다. 그리고 일단 셋째아를 출산하기로 결정하면서는 운명으로 수용하거나 종교적 신념의 차원 등으로 긍정적인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불안, 걱정

셋째아를 갖게 된 것을 알게 된 대부분의 여성참여자들은 당시에 불안감과 걱정이 앞섰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자녀양육에 따른 미래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다.

사실 셋째까지는 생각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걱정이 되었죠. 애들을 좋아하긴 해도 세 명까지 키우면 치루어야 할 일련의 일들이 고민되었고 아빠입장에서 해도 교육비나 육아부담이 아무래도 걱정이 많이 되었지요 (사례 1).

당황, 출산에 대한 고민

의도적으로 출산계획을 가진 극소수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피임실패로 인한 임신사실에 무엇보다 당황해하며 출산과 낙태 사이에서 잠시라도 고민을 하게 되는 경험을 한다.

솔직히 피임실패죠. 자연피임을 한다고 했는데 애가 생긴 거예요. 둘 다 제왕절개를 해서 수술한다는 것이 너무 무섭고 셋째는 생각도 안 해본 일이라 정말 낱아야 하나 고민 많이 했어요. 제가 신앙인을 아니지만 그래도 뱃속의 애기를 죽일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사례 2).

원래 남편이 둘만 낳자고 했는데 애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지우러가자고 해서 충격받았어요. 두 아이 모두 제왕절개를 해서 애를 낳을 때마다 무서웠지만 그렇다고 남편말대로 애기를 지우면 제가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요. 남편하고도 많이 싸우면서 제가 버텼어요 (사례 14).

어쩔 수 없이 낳아야 한다는 생각은 했지만 애가 셋이면 이제 내 생활은 끝난 거 아닌가, 애들한테 숙박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좀 우울하기도 했어요 (사례 21).

위기감

낙태 대신에 출산하기로 선택하였다하더라도 특히 여성들은 셋째아의 출산으로 인해 자신의 생활이 자녀들 양육으로 인해 완전히 회생되는 것은 아닐까 직업이 있는 경우 직업인으로서 능력이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위기감 또한 경험하게 된다.

둘째 낳고 피임을 하지 않았고 정말 계획하지도 않았고 뜻하지 않게 갑작스럽게 임신을 했어요. 직장에 들어간 지 2년 차에 또 임신을 한 것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셋째를 가진 것을 알았을 때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전문직 여성으로서 내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게 제일 고민되고 위기감마저 느꼈어요. (사례 12).

자책감

현재는 다자녀에 만족해하는 연구참여자들이라도 피임실패로 인해 셋째아를 갖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출산을 결정했어도 한편으로는 임신을 사전에 통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감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토로하였다.

장남이라 언젠가 아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은 했지만 피임실패로 애가 생겼는데 7주째 딸이라는 걸 알았는데 그냥 못 없애줬더라고요. 성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피임을 잘못했다는 생각에 자책이 많이 되었어요 (사례 20).

기대감

셋째아를 계획했거나 막연하게 기대한 경우의 응답자들은 셋째아 임신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자녀에 대한 기대와 함께 새로운 자녀로 인한 생활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다.

저와 신랑 모두 자식이 많았음 했어요. 결혼 전부터 아이 넷을 낳자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된 거죠. 위로 딸이 둘이라 셋째를 아들로 기다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들어선 거죠. 원래 계획이 있었으니까 그 계획이 앞당겨진 거라 생각해요 (사례 3).

구체적으로 출산계획을 세우진 않았지만 아들을 낳으려는 생각은 막연히 하고 있었어요. 마침 귀농을 하게 되면서 뜻하지 않게 갖게 되었어요. 생활환경도 바뀌고 아이도 또 낳아 키우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아들이라고 하니까 좋았고 아이를 가지면서 뭔가 생활의 변화 같은 걸 기대하게 되었어요 (사례 8).

긍정적 합리화

다자녀가족인 참여자들은 셋째아 임신으로 인한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기도 하였지만, 출산을 결정한 이후는 각자가 처한 상황을 연

관시켜 다자녀가족이 되는 것을 운명으로 혹은 종교적 의미로 해석하는 등 긍정적으로 합리화하며 수용하려는 태도를 갖게 된다.

결혼할 때도 아이를 세 네 명 낳자고는 했어요. 그렇지만 피임을 실패해서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쌍둥이라 모두 네 명이 된 거죠.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사례 11).

제가 루프로 피임을 했는데 잘 안 되어서 애기를 갖게 되었어요. 둘 다 언어장애라서 걱정은 좀 되었지만 애들을 좋아하고 애가 많으면 오히려 좋을 거라 생각했어요 (사례 17).

처음부터 애를 셋 이상 두겠다는 계획도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큰 아이가 사고로 그렇게 (시각장애자로) 되니까 아들에 대한 미련은 있었지만... 어쨌든 아기를 갖게 되니까 하느님이 주신 거라고 (사례 5).

기쁨, 만족감, 성취감

특히 참여자 자신이 자녀를 원한 경우 셋째 이후의 자녀를 갖게 된 것에 대해 기쁨과 만족감, 성취감을 가졌는데 적극적으로 원치 않았던 경우에도 다자녀가 된 상황을 만족스럽게 받아들였다.

제가 피임을 했는데 루프가 빠져서 또 애를 갖게 된 거예요. 저나 남편이나 애들을 좋아하니까 그리고 저는 애기를 가지면 없애지 않고 애기를 낳는 게 제 마음이 행복하려 편안해요 (사례 15).

재혼이라 남편도 애가 있고 나도 애가

있고 내 나이도 적지 않았지만 내가 절실히 원해서 다시 애기를 가진 거라 굉장히 기뻐어요 (사례 19).

내가 예전에 생각했던 대로 아이들을 많이 갖게 되었다는 것 꿈을 이루었다는 성취감 같은 걸 느꼈어요 (사례 18).

아들이라고 하니까 딸도 있고 아들도 있는 네 아이의 아빠로 인생에서 뭔가 적어도 하나는 이루었다는 그런 자랑스러움 같은 게 있었지요 (사례 7).

어떠한 이유에서든 다자녀가족이 되기 위해 최종적으로 셋째아의 출산을 결정하고 다자녀 가족 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에는 맥락적 조건과 중재적 조건이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맥락적 조건은 연구 참여자들이 다자녀가족을 이루게 된 특정 맥락을 말하는 것으로, 장남인 경우나 장남이 아니면서도 위의 두 자녀가 딸이어서 ‘남아출산에 대한 기대’가 높거나 참여자 개개 가족이 귀농이나 유학 등 ‘가족의 새로운 생활환경 변화’, ‘다자녀 선호에 대한 개인적, 가족적 배경’ 등이 출산결정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여성의 신체적 건강에 대한 자신감’, ‘자녀출산과 양육을 위한 경제적, 대인적 자원 확보’ ‘부부의 높은 결혼만족도’ ‘여성의 강한 출산 의지’와 같은 조건들이 참여자들이 다자녀가족을 이루게 된 특정한 맥락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맥락적 조건 보다 더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중재적 조건으로는 아이를 좋아하고 출산과 양육에 긍정적인 ‘개인적인 인성 특성’과 ‘개인의 직업적 상황’, ‘출산과 양육에 대한 비경제적, 인간중심적인 가치관’, ‘친정이나 시댁의 현실적인 지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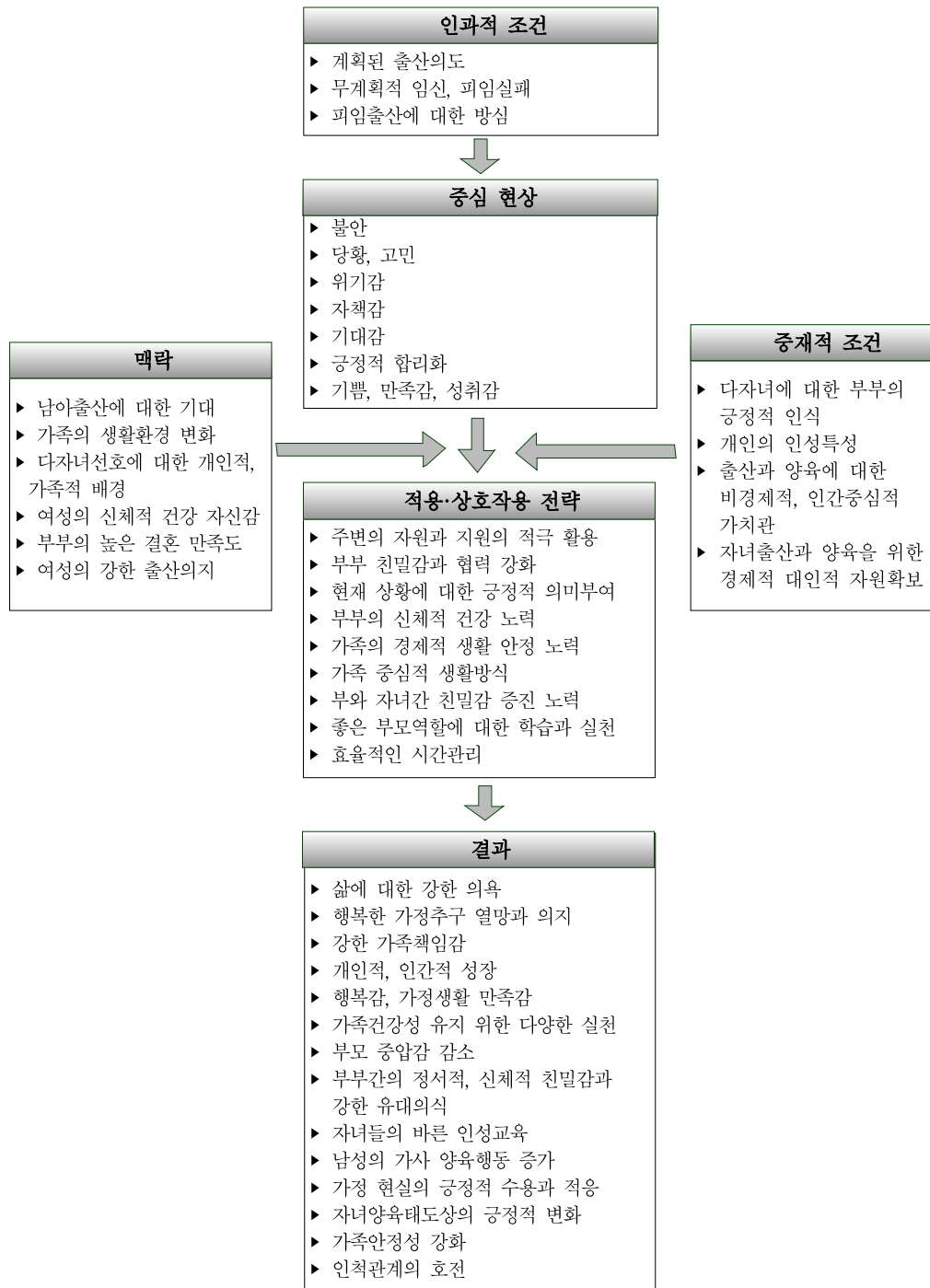


그림 1. 다자녀가족의 형성과 가족강점 지각에 대한 이론적 모형

이 결정적으로 다자녀가족을 이루려는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2. 다자녀가족의 건강성 유지를 위한 노력

연구에 참여한 다자녀를 둔 참여자들은 셋째아 출산 이후 다자녀가족을 이루고 나서 다자녀가족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음을 밝혔다. 이는 다자녀가족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으며 표 3과 그림 1에서 작용, 상호작용(전략)으로 언급하였다. 연구의 참여자들은 다자녀가족으로 적응하기 위해 ‘주변의 자원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며 ‘부부간의 친밀감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였고, 아이가 셋 혹은 넷이 된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였다. 특히 자녀가 많아지면서 부모자신의 건강에 대한 의식이 높아져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실천적인 노력을 하였으며, ‘경제적인 생활안정’을 위해 참여자들 각자의 수준에서 적극 노력하였다. 이와 함께 ‘가족중심적인 생활방식’으로 가족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 힘썼으며, 특히 자녀수가 많아지면서 ‘좋은 부모역할’에 대해 학습하고 실천 하려는 의지가 많아졌다고 한다. 남성과 여성을 포함한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특히 ‘부와 자녀간의 친밀감 증진’을 위한 노력을 언급하였다. 다자녀가족으로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 중 눈에 띄는 것은 특히 직장이 있는 여성의 ‘효율적인 시간관리’를 위한 노력이었다.

주변의 자원과 지원의 적극적인 활용

연구 참여자들은 다자녀가족의 건강성을 유

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이용가능한 주변의 자원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을 보였는데 한편으로 이러한 노력은 다자녀가족의 대처자원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자녀가족이 의지할 수 있는 자원과 지원은 배우자와 부모가 가장 대표적이었으며, 그 외에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기관과 이웃이나 사이버 상에서 관계를 맺은 사람들, 신앙적인 동료들이 있었다. 여성참여자들의 경우 다자녀가족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가족의 건강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경제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남편에게 가장 많이 의지하죠. 돈만 벌어드 준다고 남편노릇 아빠 노릇하는 건 아니잖아요. 남편이 가정적이고 최우선가치를 가정에 애들한테 두고 생활하니까 남편이 가장 도움도 되고 의지도 되는 대상이죠 (사례 2).

애 셋을 키우는 데는 아빠가 정말 필수 조건이에요. 돈을 벌어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특히 아들들한테는 아빠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물론 저한테도 가장 의지의 대상이에요 (사례 18).

일단 남편이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세 아이를 키우는데 원활히 굴러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직장생활을 해도 가사도우미나 친정 부모님께 돈을 드리고 애들을 키우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일단 경제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되니까 웬만한 거는 돈으로 때우니까 내 몸이 좀 덜 힘들기 때문에 가정생활이 굴러가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둘 다 아니 내가 전문직을 유

지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사례 12).

친정 부모님이 없었다면 세 아이를 키우는 것은 어렵도 없어요. 일하는 사람을 쓰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을 써도 친정 부모님이 도와주셨으니까 지금도 도움을 받고 있지만... 제일 큰 도움이지요 (사례 13).

직장 다니면서 애 셋을 키운다는 거는 누가 전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정말 불가능이에요. 친정엄마가 있으니까 버텼지. 친정엄마가 없었다면 정말 자포자기에 혼자 공황상태에 빠졌을 것 같아요. 솔직히 일하는 아줌마를 써도 친정엄마처럼 봐 줄 수는 없잖아요 (사례 12).

아이가 셋이라고 해도 애들이 아주 어릴 때만 좀 힘들고 일단 막내를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니까 좀 낫죠. 만약에 집에서 셋째를 봐야한다면 하루 종일 정말 내 시간이 없어 스트레스를 엄청 받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어린이집이 있다는 게 너무 고맙죠. 좋은 어린이집을 잘 알아서 보내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사례 20).

이곳에도 다문화가정이 많아져서 집사람이 잘 어울리고 같은 일본사람들끼리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는 것이 도움도 되고 의지도 돼요. 저도 좋고 (사례 10).

결혼하기 전에 교회에서 한 삼개월동안 한국말이나 음식, 문화를 가르쳐 줘요. 그래서 집사람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런게 결혼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사례 14).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 사람들이나 주일 학교에서 도움을 많이 받아요. 애들 교육도 그렇고 종교에 의지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수화통역센터 선생님들은 정말 큰 도움이 되요 (사례 17).

우리와 비슷하게 도시에서 농촌으로 같이 귀농한 사람들이 이웃으로 친하게 지내고 애들도 봐주고 계란도 팔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요. 이웃이라도 가족처럼 의지하고 문제가 생기면 의논하고 (사례 7).

교회 목사님이 많이 도와줬어요. 기도해주고 다른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우리 아이한테도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고 (사례 6).

직장인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도 직장인 엄마들이 애들 키우면서 힘든 얘기도 해주시고 아줌마를 어떻게 구하는지도 알려줘서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그리고 인터넷 카페에서 애들 키우는 얘기도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전문직종에 있으면서 애가 셋인 집은 별로 없지만 전업주부 엄마 얘기도 조금 도움이 되지요 (사례 12).

부부간 친밀감과 협력의 강화

연구참여자들은 다자녀가족이 되면서 특히 부부간의 친밀감을 더욱 높이고 파트너로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가족의 건강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애들 키우면서 남편과 둘만의 시간을 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가능한 둘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둘만의 심야데이트를 간단히 즐겨요. 가볍게 술도 먹고 동대문 구경도 가고 (사례 3).

남편과 자주 대화를 해요. 밤에 둘이서 나와 커피마시면서 애들 얘기, 우리들 애

기 등... 남편 성격을 아니까 내가 많이 참고 남편한테 말대꾸나 반말을 하지 않아요. 남편을 칭찬해주고 기를 세워주고 사실 연습으로 시작했는데 남편이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 부부사이도 좋아지고 남편은 잘 참지 못하는 성격이지만 나는 참았다가 나중에 차분히 얘기하고 그러면 남편이 내 말을 잘 듣고 우리 부부는 톱니바퀴처럼 잘 맞는 것 같아요 (사례 18).

부부가 먼저 행복하기 위해 노력해요. 애들을 키우다보면 애들한테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 부부가 행복해야 부모노릇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애들이 많다고 해서 애들만 위해서 사는 건 싫어요. 그래서 둘 다 일하기 때문에 힘들지만 부부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한 달에 한번은 우리 부부만의 날로 정해서 영화를 보거나 둘만 있는 시간을 보내고 몇 달에 한 번은 여행을 가려고 해요. 지난번에도 우리 부부만 갔다 왔어요. 모처럼 좋았어요 (사례 12).

긍정적인 의미부여

다자녀가족이 되길 원했거나 혹은 원치 않았거나 현실적으로 다자녀가족으로서 생활하는 것은 자녀들을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므로 부모들에게는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다자녀가족으로 적응하는데 필요하고도 중요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낙관주의를 부정적인 사건을 설명하는 사람들의 설명방식으로 간주할 때 낙관주의는 자신감을 해치고 효율적인 대응을 방해

할 수 있는 강력한 부적 정서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며, 문제해결에 목표를 둔 능동적인 대응을 더 많이 사용하며, 다양한 대응책을 사용하는 융통성을 갖게 하는 장점이 있다 (Baumgardner & Crothers, 2009). 다자녀가족에서도 낙관주의적인 태도는 다자녀가족의 어려움이나 스트레스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고 다양한 대응책을 사용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다.

나부터 개인적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지요. 그리고 메시지를 기왕이면 긍정적으로 보려하고 그래야 애들도 나를 따라 그렇게 되려하고 결국 우리 가족에도 좋은 거니까요 (사례 1).

자녀가 많은 가족으로 행복하려면 긍정적인 마인드와 부모로서 성숙한 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요. 원래 명랑한 성격이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을 애들한테도 보여주려고 해요 (사례 3).

애들이 많으면 많은 대로 또 어떻게 되겠지 좋게 생각해요. 옛날 사람들도 돈 안들여도 애들 키웠으니까 우리도 열심히 농사지어서 돈 벌어 애들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사례 15).

원래 제가 낙천적인 경향이 많지만 애들이 셋이 되다보니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타고 난다는 생각도 하고 낙천적으로 생각하는 게 더 많아졌어요. 애들이 공부를 좀 못해도 늦게라도 따라가겠지 나름대로 다양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믿음 같은 것도 생기고 애들이 절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애들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사례 13).

부부의 신체적 건강유지 노력

다자녀가족이 되면서 연구참여자들은 신체적 건강에 대한 관심과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며 자신이 신체적으로 건강할 때 가족을 잘 돌보고 행복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애들 생각하면 엄마인 내가 건강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볼링을 하는데 볼링하면서 건강도 좋아지고 일반 사람들하고도 어울리는 기회가 되서 여러 가지로 좋아요 (사례 17).

늦둥이 엄마 아빠라는 소리를 안 들려고 많이 노력해요. 그래서 수영하고 수영하니까 부부 사이가 좋아지더라고요. 남편도 그렇고 저도 자기 나이보다 좀 어리게 보이려고 서로 운동하고 많이 노력해요 (사례 5).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노력

다자녀가족이 되면서 양육과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당연히 가중되지만 이러한 상황에 대해 남성의 경우는 기존의 직업 활동을 하면서 경제적 책임감을 더 많이 인식하는 반면, 여성들의 경우 보다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취업활동을 하면서 가족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고 있었다. 그리고 여성의 취업활동은 단순히 경제적인 수입을 위한 활동일 뿐만 아니라 일을 통한 만족감과 스트레스 해소의 한 방편이기도 하였다.

막내가 생기고 나면서부터 남편이 더 돈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애들을 잘 키우려면 경제력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더 하게 되었대요 (사례 2).

남편만 버는 게 좀 미안하기도 하고 하다못해 애들 학원비라도 보탬이 되려고 일을 시작했어요. 일을 하는 게 경제적으로도 보탬이 되지만 나 스스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매일 집에서 식구들 뒤치다꺼리나 하는 것보다 내 일이 있으니까 사람들도 만나서 좋은 얘기도 듣고 스트레스도 덜 받고 사람들 만나서 저보다 큰 애들을 키우는 애기들을 듣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요 (사례 20).

솔직히 남편이 농사만 지어서 생활하는 아이 셋 키우는데 힘들어요. 애가 많아지니까 나도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더 많아졌어요. 남편은 어차피 농사지어 돈을 벌지만 저도 활동하면서 돈을 벌어야 생활비에 도움이 되니까 제가 한국말도 잘하고 강의도 다니면서 버는 수입이 많이 도움이 되요. 센터 가서 통역도 해주고 일을 찾은 거지요 (사례 14).

사실 애 셋 키우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웬만한 직장을 다녀서는 남는 게 없어요. 그래도 나 같은 전문직은 지출이 많다고 해도 경제적으로는 보탬도 되고 일로 인한 즐거움도 있고 삶의 보람이 있으니까 오히려 내 일을 하는 것이 우리 가정으로 보나 내 자신에게나 도움이 되죠 (사례 12).

가족중심적 생활방식

다자녀의 부모로서 참여자들은 다자녀가족이 되면서 아이가 둘 일 때에 비해 보다 가족 중심적인 생활방식으로 변화하였음을 언급하였는데 무엇보다 가족의 화합을 먼저 생각하며, 가족이 다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활동을 가지면서 가족이 보다 화목해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가족 간에 늘 화합하려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고 제 자신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요 서로가 성격도 다르고 요구하는 것도 다르니까 부모나 애들이나 서로 맞추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화합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아주 중요하다고 봐요 (사례 2).

아이들이 넷이나 되니까 어머니가 오셔서 도와주시는데 아내하고 의견충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곤란하긴 하지만 일단 어머니 얘기도 들어드리고 아내 말도 그냥 들어줘요. 아내가 일하니까 어차피 애들을 봐주는 것도 그렇고 어머니와는 나중에 함께 살아야 하니까 제가 화합할 수 있게 역할을 해야 우리 가족이 편안해지니까요 (사례 11).

인내가 정말 필요해요. 남편 성격을 맞추는 것도 애들이 하나 둘 자기주장을 내세우거나 서로 개성이 있어서 싸우고 그럴 때 애들의 그런 행동들을 보고 참아줘야 하고 정말 많이 참아요. 그리고 애들한테도 서로 참을 것을 제일 강조해요. 서로가 조금씩 참고 양보하지 않으면 매일 전쟁이니까 나부터 도 닦는 것처럼 생각하고 참

는 거죠 (사례 8).

그 전보다 더 아이들과 함께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을 찾게 되었고 애들이 어리지만 골프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애들이 아빠하고 같이 있으면서 운동도 하려고 하는 거지요 (사례 1).

남편과 애들 다 같이 함께 장보러 간다거나 외식하기 같이 텃밭에 가는 것, 목욕탕 가는 것 까지 가능하면 함께 다니려고 해요 (사례 3).

휴일이면 가능한 다 같이 운동하거나 넷가에 가거나 뭐든 같이 하려고 해요. 귀찮을 때도 있지만 애들하고 있는 시간이 중요하니까요 (사례 14).

우리 부부가 비록 말도 못하고 잘 듣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애들하고 교회에서 하는 봉사활동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같이 참여해요. 애들도 잘 따라주고 (사례 17).

가능한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려고 해요. 집안일을 하면서 애들하고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사례 7).

우리 집은 한 달에 한번은 일요일 저녁에 회의를 해요. 서로 칭찬도 해주고 진실 게임도 하고 그러다 보면 몰랐던 얘기도 듣게 되고 아이들 생활도 알게 되고 서로 하고 싶은 말이나 요구도 하니까 좋아요 (사례 18).

가족이 함께 기도를 하고 신앙적으로 많이 의지해요 (사례 5).

부와 자녀사이의 친밀감 증진 노력

다자녀가족이 가족중심적인 생활방식으로

생활한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여성이 자녀와 갖는 시간이 더 많으므로 해서 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더 밀착될 가능성이 많다. 실제로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가사분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육아와 가사가 여성의 일로 된다는 전국적인 조사결과도 있다(강혜진, 2009)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특히 다자녀가족이 되고 난 이후 아버지와 자녀들이 보다 친밀해질 수 있도록 더 많이 신경쓰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애들이 아빠하고는 애기도 덜하고 좀 어려워해요. 집에서 애들이 어려워하는 부모는 한 사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애들이 엄마하고만 너무 가까우니까 남편과 애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미리 영화표도 사주고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제가 의도적으로 많이 만들어요 (사례 18).

애들을 가능한 하루에 한 번은 안아주려고 해요. 조금이라도 어릴 때 아빠하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사례 7).

좋은 부모역할에 대한 학습과 실천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많이 두게 되면 경험을 통해 자녀양육의 전문가가 된다고 생각하여 더 이상의 학습이나 노력이 필요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통념과는 달리 정작 면접한 다자녀가족의 성원들은 자녀들이 많아질수록 자녀의 개성과 개인차에 대한 새로운 경험과 통찰을 하게 되면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배우고 실천하고자 노력하였다.

애들마다 모두 성격, 개성이 다르다보니 애가 많다고 해서 육아전문가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애를 키울 때마다 예전에 키우던 기준을 다시 생각해볼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애들 한 아이 한 아이마다 관심을 갖게 되고 애 셋을 둔 부모라고 해도 더 배우고 나아져야겠다는 생각에 책도 보고 교육방송도 보고 그런 노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례 2).

부모님한테 더 잘하려고 해요. 솔직히 효도심이 더 많아져서가 아니라 좀 이기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우리 애들이 저를 보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 효도하는 모습을 보고 배웠으면 하는 거죠 (사례 18).

교회나 방송 같은 데서 대화법 같은 내용을 배우면 가능한 애들한테 써 보려고 해요. 잘 안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노력하다보니 애들한테도 좀 관대해진 것 같아요 (사례 20).

아이들과 친구처럼 지내기 위해 노력하고 가능하면 아이들에게 많은 자율적인 권한을 주려고 해요. 그리고 부부가 싸우는 모습을 애들한테 안 보이도록 노력하죠 (사례 13).

효율적인 시간관리

시간관리의 문제는 특히 다자녀를 둔 여성의 경우 중요하였는데 이는 취업주부인 경우나 전업주부인 경우 모두에게 해당되었다. 취업주부인 경우 직장일과 가정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전업주부의 경우 자신을 돌보거나 자녀들과 개별적인 시간을 갖기 위해 시간관

리의 중요성을 절감하며 이러한 시간관리가 곧 현재의 가족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누구에게나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일단 집을 떠나서 직장에 가면 집안일이나 애들 일도 잊어버려요. 그리고 퇴근하면서 부터는 직장일은 잊어버리고 집에 가서 할 일만 생각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나만의 시간을 갖고 오직 내 할 일에 전념해요. 애들을 맡겨놓고. 그렇게 해서 나를 충전시켜야 애들이나 직장일 때문에 지치지 않고 정신건강이 좀 괜찮아져요. 그래야 애들 보는 거나 직장일도 열심히 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 내 나름대로 시간들을 잘 관리하려고 해요 (사례 12).

애들하고 지내다 보면 정말 집에서 하루 종일 동둥거리고 보내거나 지쳐서 펴지고 나를 위한 시간을 내는 일이나 아이 셋 하나하나와 같이 둘만 보내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시간관리에 신경 쓰죠. 큰 애가 이걸 하는 동안은 둘째하고는 이걸 해야겠다거나 늘 시간과의 싸움이라서 시간관리를 잘 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죠 (사례 2).

3. 다자녀가족으로서 지각하는 다자녀가족의 강점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자녀가족으로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 즉 전략을 경주한 결과 현재의 가족상황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하고 나름대로 건강한 가족으로 인식하고 있

었다. 그러므로 다자녀가족으로서의 건강성 혹은 강점지각을 근거이론적 접근에서 그러한 전략의 결과로 파악하고 다자녀가족으로서의 강점 혹은 건강성의 구체적인 응답내용들을 범주화하였다. 표 3과 그림 1로 제시된 다자녀가족의 건강성 혹은 강점으로 분류된 내용들은 ‘삶에 대한 강한 의욕’, ‘행복한 가정에 대한 열망과 의지’, ‘가정에 대한 강한 책임감’, ‘개인적, 인간적 성장’, ‘행복감과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감’, ‘가족건강성 유지위한 다양한 실천’, ‘부모중압감의 감소’ ‘부부간의 정서적, 신체적 친밀감과 강한 유대 의식’, ‘자녀들의 인성교육’, ‘아버지의 가사와 양육행동 참여증가’ ‘가정 현실의 긍정적 수용과 적응’, ‘자녀양육태도상의 긍정적 변화’ ‘가족안정성 강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삶에 대한 강한 의욕

다자녀가족이 되면서 연구 참여자들은 삶에 대한 의욕이 더 강해졌다고 하였다. 다자녀가족으로서 자녀양육비용을 걱정하기 보다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삶에 대한 의지와 열망이 높아진 것은 Stinett과 DeFrain이 건강가족의 특성 중의 하나로 언급한 영적 안녕(spiritual well-being)을 삶에 대한 낙관론으로도 간주할 때 이와 비슷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정말 열심히 그리고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애들이 잘 될거라는 생각을 일부로라도 하려고 해요 (사례 2).

다른 사람들이 저보고 항상 밝게 웃는다고 해요. 표정이 밝다고. 그리고 적극적인

이래요. 애들이 많으니까 즐거워서 그런 거 같아요. 그리고 애가 셋이나 되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겠 다는 생각도 하고 모든 면에서 적극적으로 변했어요 (사례 11).

큰 아이가 장애를 당하고 나서 상심하고 절망했던 것들이 둘째나 셋둥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많이 밝은 쪽으로 생각하게 되고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삶에 대해 많이 긍정적이 되었어요 (사례 6).

행복한 가정에 대한 열망과 의지

참여자들은 다자녀가족이 된 이후에 이전보다 행복한 가정에 대한 열망과 의지가 더 강해졌다고 하였으며 이는 다자녀가족의 건강성의 중요한 일면으로 간주된다.

비록 장애가 있지만 다복한 가정, 엄마 아빠가 애들을 잘 돌봐주는 가정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많아졌어요 (사례 11).

다른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아직도 아주 없진 않아요. 그리고 솔직히 어린이집 일이 남자한테는 매력적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가장으로서 개인적으로 지금 다른 일을 하기보다는 집사람이 하는 어린이집을 같이 하는 것이 애 엄마나 큰 아이한테나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큰 도움이 되는 것을 아니까 그런 마음은 접었어요. 내 일보다 가정이 일단 잘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방향으로 노력하는 거지요 (사례 6).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을 만들어가고자 애쓰고 좋은 엄마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해요. 애들한테 모범을 보여야 할 것 같아서 남편하고 싸우고 싶은 것도 참는 편이에요 (사례 13).

가정에 대한 강한 책임감

일반적으로 부부에게 자녀가 생기면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많아지지만 자녀수가 셋 이상이 된 참여자 남성은 경제적 부양에 대한 책임감이, 여성은 양육책임에 대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욱 많아졌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책임감은 바로 다자녀가족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가정에 대한 강한 책임감은 가족에의 헌신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는데 헌신은 Olson과 DeFrain(2004)의 순환모델에서 건강한 가족의 특성인 가족응집성의 한 차원으로 간주되었다.

남편이 애 셋이 되고나니 책임감이랄까 돈 버는 것에 대해 욕심을 더 많이 갖게 되었어요. 좀 더 유망한 쪽으로 일 해보려고 대학도 다시 다녔고 애들이 셋이다 보니 나중에 결혼시키려면 돈도 많이 있어야 하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강한 책임 의식이 생겼대요. (사례 18).

아이가 둘일 때는 생활비가 넉넉하지 않아도 이 정도면 먹고 살만해라고 생각했는데 셋이 되니까 애들 교육비라도 보태야지 생각해서 부업을 시작했어요. 경제적인 책임감이 많아졌어요 (사례 17).

애들이 많다보니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책임감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남편도 육하던 성질도 많이 온순해지고 애들한테나 저한테도 잘해주려 하고 자기도 책임

감을 많이 느낀대요 (사례 21).

네 아이의 아빠가 될 줄은 저도 몰랐어요. 막상 되어보니까 책임감이 밀려와요 (사례 7).

남편이 책임감이 많아졌대요. 책임감 때문에 직장에서 늦게 까지 있고 싶어도 좀 일찍 오고 가능한 나를 더 도와주려고 하고 나 혼자선 안 되니까 많이 도와주려고 해요. 애가 하나일 때나 둘째 때까지도 나와 부모님한테 맡겼지만 이젠 책임감을 느껴서 도와주고 관여도 하고 그렇게 변한 거죠 (사례 12).

세 아이가 되면서 의무감, 책임감 같은 게 생겼어요. 우리 애들은 내가 어떻게든 건사해야 되겠다는 생각 같은 거요 (사례 13).

개인적, 인간적 성장

다자녀가족을 이룬 참여자들의 경우 특히 많은 여성의 경우 셋째 자녀를 낳고나서 자아 개념이 긍정적으로 변화했거나, 심리적, 정신적인 안정감이 증가하는 등 개인적으로 인간적인 면에서 자신이 성장하였음을 언급하였다. 이는 다자녀가족의 가족적인 강점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강점으로 볼 수도 있으나 가족의 중심인물인 여성의 이러한 변화는 곧 가족의 높은 건강성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내로서 신랑한테 내 할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하고 내 자신이 능력있는 여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주위사람들이 모두 부러움을 표하기 때문에 사실 경제적 능력이나 양육여건 혹은 원하는 성별의 선

택이 어렵다는 이유로 다자녀 출산이 어려운 가정이 대부분이잖아요 (사례 3).

원래 욕심이 많았는데 한국에 와서 살면서 애들도 셋이나 되고 보니 목표도 많아지고 목표를 정하면 끝까지 해보게 되었어요. 한국말도 그래서 열심히 하고 운전면허도 컴퓨터자격증도 다 땀어요. 한국 사람도 하기 힘들다는데 전 자신 있어요. 아이들도 엄마는 뭐든지 잘한다고 자랑스러워해요 (사례 14).

애 셋을 낳고나서 전보다 더 당당해졌어요. 아이가 하나일 때는 전전긍긍하고 자신감도 없고 두려움이 많았는데 이제는 제 자신에 대해 자신감도 많아지고 용기도 많아졌어요 (사례 18).

애 넷을 키우다보니 살아가는데 자신감이 많아졌어요. 애들을 보면 그래도 엄마로서 내가 잘했구나 생각이 들고 주위에서 애 넷 키운 집이라는 얘기를 듣고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면 제 자신이 좀 대단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사례 8).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죠. 사실 애 넷을 잘 키워야겠다는 부담감도 있지만 남자로서 네 아이의 아빠라는 게 뿌듯하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잘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사실 양계장도 그 전엔 생각해본 적도 없지만 배워서 이렇게 해보니까 욕심이 나는 거예요 (사례 7).

애가 셋이 되어서 그런 건지 나이가 드는 건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예전보다 심리적으로 많이 안정되었어요. 예전에는 기분이나 감정의 기복이 심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불안한 건 별로 없어졌어요. 마음이 많

이 편해진 것 같아요 (사례 2).

참을성이 많아졌어요. 애들이 많아지면서 인생이 좀 더 풍요로워진 느낌도 들면서 인내심이나 수용심이 많아졌어요. 심리적으로 더 안정되었다고나 할까 (사례 12).

재혼하고서 애를 또 낳아서 나한테는 셋째인거죠. 그러고 나서 정신적으로 많이 편안해졌어요. 결혼생활이 애들 문제로 힘들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안정을 찾을 수 있었어요 (사례 19).

행복감과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감

연구참여자들은 다자녀가족으로서 좋은 점이 무엇인가를 질문하였을 때 공통적으로 무엇보다 가장 먼저 다자녀로 인한 행복감이나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내는 이야기로 시작하였다. 건강가족의 특성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에서(유영주 등, 2009) 건강가족의 특성으로 '행복감'이나 '만족감'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듯이 건강한 다자녀가족은 행복감이나 만족감과 같은 긍정적 정서 혹은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자녀를 둔 부모들이 행복감을 많이 느낀다고 언급한 것은 개인적이며 독립적인 성취나 성공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개인주의 문화와는 달리, 자신이 속한 집단 특히 가족과 같은 일차 집단내 관계에 만족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으며 상호의존적 가치가 중시될 때 행복감을 느끼는 한국인의 집단주의적 문화적 배경이 많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다자녀를 둔 참여자들이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순수하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여러 자녀들의 양육으로 인한 재미와 즐거움, 만족감에서 연유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일부는 최근에 다자녀를 부러워하는 주위나 타인의 시선에서 오는 만족감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다자녀로 인한 행복감은 곧 현재 가족생활에 대한 만족감과 직결되었다.

애들이 많아서 항상 시끌시끌한 것이 사람 사는 분위기가 있어서 좋아요. 둘 일 때보다 아이가 셋이 되니까 행복도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 애들끼리도 즐겁게 놀고 딸 셋이 장기자랑을 한다거나 식당에서 다른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을 느낄 때 행복하다는 것을 더 느끼게 되요 (사례 1).

애가 넷이나 되니까 든든하고 애들 재롱으로 집안에 웃을 일이 많아요. 신랑이나 시어머니하고 불화가 있어도 애들이 노래불러주거나 안마해주면 금방 잊어버리게 되고 걱정이 없어져요. 애들이 중간에서 화해시켜주는 역할도 해주고 (사례 3).

애들이 많으니까 정신적으로 뭔가 기쁩요. 항상 우스운 얘기도 많이 하고 비록 잘 살지는 않아도 너무너무 행복해요(사례 9).

결혼도 하고 애들도 많아서 남들처럼 사람답게 산다는 게 뿌듯하고 좋아요. 돈은 없어도 애들하고 가정이 화목하다는 게 행복한 거죠 (사례 10).

남들은 애를 자꾸 낳아 어떻게 키우려고 하느냐하는데 힘은 들어도 즐겁고 행복

해요. 애들 크는 거 보면 재밌어요. 돈은 없지만 애들이 안 아프고 건강하니까 행복하게 크니까 그게 행복한 거죠 (사례 15).

일단 아이들이 많다는 것 자체가 행복해요. 애들이 많아서 재미있고 행복이 넘치는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도 너희는 애가 셋이라서 정말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서도 행복해요 (사례 17).

애들로 인해 더 많이 웃게 되고 더 젊어지는 것 같아요 (사례 20).

아이가 하나만 없어도 경제적으로 더 잘 살 것 같지만 아이를 키우는 건 당장 눈앞에 경제적인 가치로만 따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보람이나 즐거움 아이들로 인해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은 절대로 돈으로 따져지지 않으니깐요 (사례 6).

셋째가 생긴 후에 가족분위기도 밝아졌고 첫째와 둘째 사이의 다툼도 중재해주고 부부싸움을 해도 개가 중간 역할을 해주니까 좋아요 (사례 13).

애가 넷이니깐 훨씬 웃을 일이 많아요 (사례 5).

매일 가족이 밥상에 빙 둘러 앉아서 밥 먹을 때마다 이런 가족이 있다는 게 행복하고 지금 너무 만족해요. 우리 가족을 생각하면 마음이 부자인거죠 (사례 18).

돈만 많다고 가족이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애들이 많으니깐 부모로서 형제들끼리 울타리를 만들어준 것 같아서 좋고 진짜 가족을 만든 것 같은 느낌 그 자체가 만족스러워요 애들이 많아질수록 가족으로

살면서 느끼는 행복감, 만족감도 커지는 것 같아요. (사례 8).

아들이 있어서 장남으로서 역할을 한 것 같고 부모님도 좋아하시고 큰 애들도 엄마하고 사이가 더 좋아진 것 같아서 지금 생활에 만족해요 (사례 13).

가족건강성 유지를 위한 다양한 실천

연구에 참여한 다자녀가족들은 자신들의 가족을 건강한 가족을 만들기 위해 배우자관계나 자녀와의 관계에서 다양한 노력과 실천을 하고 있었으며 이는 다자녀가족의 장점으로 간주할 수 있다.

Stinett과 DeFrain은 건강한 가족의 6가지 특성 중의 하나로 감사와 애정(Olson & DeFrain, 2002)을 제시하였는데 연구에 참여한 다자녀가족들은 무엇보다 배우자에게 감사한 마음과 신뢰감을 공통적으로 언급하였다. 이렇게 배우자에게 감사와 신뢰를 갖는 것은 상대 배우자가 먼저 감사하고 고마워할 만한 다양한 노력을 하였기 때문이다.

남편이 결혼한 지 일 년 만에 저한테 경제권을 맡겼어요. 그게 제일 고마워요. 우리 같은 다문화가정에서는 외국에서 온 여자들을 안 믿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저를 믿고 돈을 맡겨버리니까 너무 고마운 거죠. 가장 확실하게 신뢰를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난 비상금도 챙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야 하니까. 부부는 그런 경제적인 비밀이 없어야 해요. 남편한테 그런 면에서 고맙다고 말하죠 (사례 14).

남편이 사람이 너무 좋아요. 아무리 바빠도 남의 일도 잘 도와주고 저한테도 주는 아니지만 고맙다고 해요. 처음엔 한국말이 잘 안되어서 답답했는데 이제는 설명하면 남편이 미안하다고 말해주고 그래서 마음이 풀려요 (사례 9).

이 사람이 면에서 나한테 와서 고생하고 있으니까 고맙죠. 어머니한테도 잘하고. 솔직히 배운 것 가진 것 없는 사람이 이런 시골에서 결혼하고 산다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조선족 여자도 도망갔고...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고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준 집사람한테 많이 고맙죠. 그래서 고맙다고 얘기해요 (사례 10).

남편이 정말 고마운 거는 하던 일 접고 시골 가서 살자고 했을 때 남편이 도시생활에 미련이 많았지만 제 말을 들어주고 귀농학교에 같이 교육을 받으러 다닌 거예요. 결국 여기까지 온 것도 남편이 제 뜻을 받아줘서 그렇게 된 거죠. 저를 믿고 생활을 완전히 바꾼 것이 고맙고 감사하죠 (사례 8).

집사람한테 늘 고맙죠. 결혼생활동안 저한테 싫은 소리를 안 했어요. IMF로 이 사람이 하는 어린이집 일을 같이 하게 되었는데 늘 표정이 밝고 항상 변치 않고 남편으로 대우해주고 잘해주는 것이 고맙죠. 사실 제가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는데 (사례 6).

남편이 애들에게 소리 지르거나 화내지 않고 갈등을 해결하려는 모습이 좋아요. 성실하고 믿을만한 사람이에요 (사례 13).

부모중압감의 감소

다자녀가족에서 일상적으로 양육의 책임을 더 많이 맡고 있는 여성참여자들의 경우 다자녀가족의 장점으로 부모역할의 스트레스가 오히려 줄었음을 강조하였다.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자녀수가 많아지면서 첫째아나 둘째아와 함께 셋째아 양육의 역할을 분담하거나 비록 어리지만 부모처럼 행동하는 만자녀에게 의지하면서 부모로서의 중압감이 오히려 줄어드는 것에 만족해하고 있었다.

외동아이 같으면 모든 에너지와 관심을 쏟는데 애가 셋이다 보니 그런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가 분산되니까 부모로서 스트레스도 오히려 줄어들고 편한 점이 있어요 (사례 2).

아이는 낳을수록 키우기 쉬워요. 아이가 하나일 때는 엄마도 무얼 몰라서 동동대고 아이도 혼자 놀아 외롭고 심심하게 지내는데 그러나 둘 혹은 그 이상이 되면 앞의 아이를 키우던 수고의 삼분의 일 만큼의 수고로 아이를 양육하는 것과 같게 느껴져요 (사례 3).

큰 애가 동생들을 잘 챙기고 돌봐주니까 정말 편하고 마음이 놓여요 (사례 9).

큰 애가 수화를 잘해서 저희들이 생활하는데 일반인하고 소통하는 것도 도와주고 동생들도 챙기고 하니까 사실 부모노릇하는데 큰 아이한테 많이 의지하고 도움을 받아요 (사례 17).

큰 애 때는 같이 놀아주고 책도 읽어주고 내가 다 해줘야 했는데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가니까 자기네들끼리 놀고 그러

니까 굳이 아빠가 끼지 않아도 되는 게 부담이 줄어들었어요 (사례 20).

아이들이 많으니까 부모가 관여를 안 해도 되고 (사례 6).

애가 하나 둘일 때는 애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되기도 했는데 셋이나 되니까 형제끼리 서로 의지할 수 있고 만약에 우리가 죽어도 애들끼리 의지할 테니까 덜 불안하고 든든하죠 (사례 12).

큰 아이 키울 때는 애한테 거의 매진했어요.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고 책 읽어주고 사회성이 부족해서 동네 애들을 찾아다니며 놀아주고 아이한테 전념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만 잘못될 것 같아 불안하고 그런데 내가 했던 것만큼 아이한테 모든 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쌍둥이 애들을 키우면서 마음이 굉장히 많이 편해졌어요 (사례 5).

부부간의 정서적, 신체적 친밀감과 강한 유대의식

건강한 가족은 건강한 부부관계가 가족의 중심이 되는 가족(Olson & DeFrain, 2006)이며 이때 건강한 부부관계에서는 정서적, 신체적인 친밀감과 파트너로서의 공동체의식 곧 유대의식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연구에 참여한 다자녀가족들도 다자녀가족의 강점으로 친밀하고 유대의식이 강한 부부관계를 꼽고 있었으며, 가족의 중심으로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유대의식을 갖게 하는 데는 대화를 많이 하는 습관을 언급하였다.

남들이 생각하기에 애들이 많아서 부부끼리만 그런 시간이 없을 것 같을지 몰라도 오히려 애들끼리 따로 자고 우리 부부끼리만 자니까 그전보다 훨씬 부부사이도 좋아지고 부부관계도 만족스러워요 (사례 5).

애들이 많으니까 애들 애기도 많이 하게 되고 부부간의 대화가 많아지고 심리적으로도 더 가까워진 것 같고 그러면서 부부관계도 나름 만족하게 된 것 같아요 (사례 12).

우리 부부는 생각하는 것이 많이 비슷해요. 애들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문제에 대한 것이나 인생에 대한 가치관이 비슷해서 연대감이 강하다고 해야 하나 그리고 아이가 셋이지만 부부관계는 더 내밀해진 점이 좋은 점이라고 할까 (사례 1).

부부로서 팀워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남편하고는 최대한 오픈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둘이 생각이나 관점이 정말 많이 비슷해요. 둘 다 종교는 없지만 둘이 가치관이 같아서 좋아요. 애가 셋이 되면서 서로에 대해 배려하는 것도 많아졌어요. 서로 애 셋을 키운다는 게 힘들다는 걸 알게 되니까 나보고 남편이 고생이 많다고 나도 남편에 대해 가장으로서 부담이 많겠다 싶으면서 이해하게 되니까 측은지심이랄까 그런 마음이 들게 되었어요 (사례 2).

하루 종일 농사일도 같이 하고 붙어있으니까 생각도 똑같아요. 내가 사실은 농사일은 잘 못해요. 그래도 남편이 잘한다고 아프면 보살펴주고 항상 나한테 고마워라하고 남한테도 잘 베풀고 그래서 좋아

요 (사례 15).

남편하고 가능하면 계속 이야기를 해요. 여기 한국에서는 여자가 참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참으면 자기만 병드니까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내가 힘든 만큼 상대방도 힘들겠다고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이해가 가고 대화도 하면서 서로를 좋게 생각하려고 해요 (사례 14).

24시간 남편이랑 애들이랑 같이 지내고 생활을 다 아니까 더 한 가족이라는 느낌을 많이 갖게 되었어요. 결혼 전보다도 더 부부 사이가 가까워지고 이제는 완전히 한 팀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사례 8).

자녀들의 바른 인성교육

자녀수에 따른 아동의 사회성과 관련하여 최근의 한 연구(서안리 등, 2009)에서는 한 자녀 가정과 다자녀가정을 비교해볼 때 한 자녀 가정 아동과 다자녀가정 아동의 사회성은 전체적으로 차이가 없었으나, 한국어머니의 양육방식이 한 자녀 가정 아동보다는 다자녀가정 아동의 여러 사회성 지표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자녀가정만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문숙재 등, 2007)에서는 다자녀가족의 부모들이 자녀들이 사회성이나 남에 대한 배려, 학습의 면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한 자녀 가족에서 다자녀가족으로의 변화를 거치면서 자녀들이 사회성이나 문제해결력의 면에서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다자녀가족이 자녀들에게 바른 인성을 키워주는 좋은 학습의 장으로 강점을 갖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아이들이 각자 맡는 역할을 하니까 큰 애는 의젓해지고 리더쉽도 많아지고 작은 애들은 애들대로 우애 있게 잘 지내니까 애들이 인성도 좋아지고 문제가 생기면 자기네끼리 해결하니까 문제해결력도 좋아진 것 같아요 (사례 2).

애들이 따로 친구를 사귄 필요 없이 친구가 집안에 다 있으니까 애들끼리 잘 놀고 그 안에서 사회성도 배우고 형은 동생에게 양보하고 나름대로 자기네끼리 규칙을 만들어서 노니까 따로 교육이 필요 없어요. 부모가 죽더라도 서로 의지하고 챙겨줄 수 있을 거고 애들도 많지만 삼대가 같이 사니까 애들이 예의나 예법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어 좋은 것 같아요 (사례 3).

애들끼리 너무 잘 놀고 공부할 때도 서로 봐주고 하니까 애들이 저절로 알아서 잘 크는 것 같아요 (사례 11).

애들이 하나나 둘일 때보다 잘 어울리고 외롭지 않고 형, 동생 하면서 위아래도 알고 하니까 교육도 저절로 돼서 좋아요 (사례 21).

형제들이 많아서 정서에 좋은 것 같아요. 서로 형제간에 양보할 줄도 알고 챙겨주고 맨날 잔칫집 같은 분위기예요. 애들도 언니 동생이 있으니까 학교에서도 마음이 든든하대요.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면 형제들이 도와주고 하니까 애들이 어디 나가서도 예의도 바르고 잘 자랐다는 말을 들어요 (사례 8).

큰 아이가 시력을 잃었어도 만이로 의젓하게 행동하고 동생들은 그런 장애를 이

해하고 도와주면서 장애를 가진 형제를 둔 상황에 대해 잘 적응해가고 정리를 해가는 것 같아요. 애들이 나름대로 잘 크고 있어서 보람을 느끼죠 (사례 6).

형제들이 많다보니 애들이 어리지만 양보심이나 자립심이 많아진 것 같아요 (사례 12).

큰 아이가 보지 못한다는 걸 동생들이 아니까 어리지만 형을 도와주려고 하고 바로 아래 딸도 앞 못 보는 오빠를 많이 이해하고 배려해요. 학교에서 글짓기를 한다거나 그러면 오빠이야기를 해서 상도 받고 감정도 풍부해지고 따로 교육을 안 시켜도 저절로 장애 오빠에 대한 교육도 되고 (사례 5).

아버지의 가사와 양육행동 참여증가

최근 생활시간조사에 의하면(통계청, 2010),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남자의 가사노동시간은 42분이며 맞벌이가구 남편의 경우 24분으로 나타났으며, 미취학자녀가 있는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노동시간은 평일 8시간 23분, 취업주부인 경우 4시간 7분으로 나타나 가사노동에 관한 한 여성들이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2005년도 전국 출산 및 출산동향 조사자료를 분석한 연구(강혜진, 2009)에서도 자녀수가 많을수록 가사노동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육아와 가사는 여전히 여성의 몫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참여자들의 경우 자녀가 세 명이상이 되는 다자녀가 되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되는 남성은 거의 자발적으로 가사와 양육에 참여하며 그러한 참여 없이는 가족생활이 원만하

게 유지되기가 힘들다는 자각을 하게 된다. 자녀가 셋 이상이 되면 남성 또한 아버지로서의 부모정체감이 강화되며 자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가족을 생활의 우선순위로 정하는 태도로의 변화가 생기며 이러한 변화를 목격하는 배우자인 여성들은 다자녀가족의 강점으로 이전과는 다르게 혹은 더 많이 가사와 양육을 도와주는 남편의 변화를 꼽았다.

아들만 셋이고 남편하고 같은 운동을 하니 애들이 아빠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요. 애들하고 아빠하고 서로 대화도 잘 통하고 우리 집에선 절대적으로 아빠가 중요한 사람이에요(사례 21).

나보다도 남편이 원래 집안일이나 육아를 잘 못하는 편이었는데 애가 셋이 되고 나서는 집안도 슬슬 알아서 치우고 많이 도와줘요. 애들한테도 관심을 갖고 좀 나아졌어요(사례 14).

남편이 더 아빠다워진 것 같아요. 셋째가 아들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애 목욕도 시키고 예뻐라해요. 집안일도 더 잘 도와주고(사례 9).

아빠로서 해줄 게 많더라고요. 축구하거나 산에 데리고 가거나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성경책을 읽고 같이 DVD도 빌려다보고... 애들도 아빠가 있어야 자기 할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일이 바빠도 가능한 애들과 시간을 잘 보내려고 해요 (사례 11).

남편이 안하던 집안일도 하고 애들 진로도 직접 챙기고 많이 좋아졌어요 (사례 21).

남편이 첫 아이 때는 안 그랬는데 막내 낳고 나면서부터는 많이 도와줘요. 가정적으로 돌아왔다고나 할까 (사례 20).

원래는 저도 활동적이어서 밖에서 생활하는 걸 좋아했어요. 하지만 애가 넷이나 되니까 저 스스로 억제하고 가능한 저녁시간에는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면 모임이나 외출은 삼가고 애들하고 있어요 (사례 6).

원래 가정적이긴 했는데 셋째를 보고나서는 아들이 자기를 닮았다고 더 만족해하고 관심도 많고 애들이나 가정일에 더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사례 13).

가정 현실의 긍정적 수용과 적응

본 연구에 참여한 다자녀가족은 가족의 특성과 생활수준에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다문화가족이나 장애부모가족, 귀농가족, 맞벌이가족 등 각자가 처한 현실에서 다자녀가족이 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외부인이 보기에 힘들어 보이는 현실에 적응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애들이 다문화가정이라고 엄마가 일본 사람이라고 나쁘게 생각하거나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런 게 없어요. 애들이 셋이다 보니 오히려 서로 힘이 되어 오히려 더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시골이라서 도시에 가고 싶다는 생각은 없어요. 오히려 우리 애들이 크는 데는 지금 이런 곳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사례 9).

큰 애가 장애라서 하나였다면 개한테만 올인 할 수도 있었는데 동생들이 태어나니까 개네들한테도 신경을 쓰느라 큰 애한테

조금 신경을 덜 쓰게 되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큰 애를 성장시키는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애들이 많은 게 오히려 장애가 있는 아이를 둔 저희 같은 가족한테는 더 좋은 거지요 (사례 5).

우리 집처럼 다문화가정이면서 아이들이 많으면 한국 사람들의 혼혈에 대한 인식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우리 집은 애들이 셋이나 되니까 다문화가정이라고 해서 특별히 왕따를 당하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형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안하고 씩씩하게 잘 크는 것 같아요 (사례 14).

우리는 애가 넷이다 되고 보니까 귀농해서도 완전히 여기서 뿌리내릴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들처럼 직장을 도시에 두고 있거나 마음을 못 붙이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린 여기서 터를 잡는다고 생각해요. 애들이 많으니까 도시로 다시 나갈 그런 생각은 안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 생각하니까 귀농한 가족 중에서도 가장 적응을 잘하고 모범적이라는 말을 들어요. 사실 애들이 귀농생활에 적응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여기서 애들이 더 잘 크는 모습도 보니까 (사례 8).

제가 어린이집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 넷을 키운 경험이 크게 도움이 되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 경험에서 나온 것이고 영아부터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모두 커버할 수 있어요. 부모들 대상으로 강의할 때도 부모님들이 제 얘기를 재미있어라 하고 제가 하는 일이 아이들 쪽이라 아이들이 많은 저의 육아경험이 여러 가지로 큰 도움이 되죠 (사례 5).

자녀양육태도상의 긍정적 변화

일반적으로 다자녀가족의 부모는 많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으며 그로 인해 삶의 질이 낮아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최근의 한 연구(이화영, 2010)에서는 다자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특히 부모역할로 인한 부담감이 많을수록 오히려 사회적 영역에서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자녀수가 많아지면 그로 인해 신체적, 경제적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작 연구참여자인 다자녀가족은 자녀양육으로 인한 재미와 자신감을 더 많이 갖게 되고, 양육태도도 관대해지며 여유로워졌으며 나름대로 양육에 대한 소신을 갖게 되고, 부모로서의 정체감이 많아지는 등 심리적이거나 정신적인 면에서 오히려 많은 이득을 본다고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구체적으로 자녀양육의 재미와 자신감, 부모로서의 정체감 증가, 여유있는 양육태도로 구분해볼 수 있다.

먼저 다자녀가족으로 자녀양육의 재미와 자신감이 많아졌다는 긍정적인 변화를 살펴볼 때, 이는 선행연구(안선희 등, 2004)에서 어머니가 가족건강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양육효능감이 많아진다는 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다자녀인 상황에 만족해하는 연구참여자들은 나름대로 양육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만 어려움에 대한 걱정보다는 다자녀 양육으로 인한 즐거움과 양육경험의 학습효과로 인해 갖게 된 자신감을 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한다고 할 수 있다.

막내가 재물을 피우면 모두 재밌어라하

고 애 키우는 재미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물론 내가 키우는 방식이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으로 애들 키우는 것에 대해 노하우랄지 지혜 같은 것도 생기고 자신감도 커졌어요 (사례 2).

애가 넷이다 되다보니 키우는 맛이 제각각이에요 (사례 11).

애들을 제 방식대로 키웠는데 가끔 교육방송이나 그런데서 자녀교육과 관련하여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으면 아내 방식이 맞았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애들을 키우면서 경험이 많으니까 나름대로 자신감도 있어요 (사례 8).

애들이 자기네들끼리 잘 노는 것을 보는 것도 재미있어요. 매일매일 일이 생기니까 그리고 애들이 이대로 자라주면 잘 클 것 같다는 희망적인 생각도 해요 (사례 13).

애들이 많다보니 키우는 재미도 있지만 사실 욕심도 생겨요. 애들한테 기대하는 게 많아졌어요. 한 애는 의사했으면 좋겠고 다른 애는 사회적으로 선망하지 않아도 음악가라든가 다른 직업도 시켜볼 수 있고 애들한테 다양한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거 잘하면 애들 셋 모두 훌륭하게 키워서 명문가를 만들 수도 있겠다는 희망 같은 것... (사례 12).

쌍둥이라도 정말 달라요. 같은 환경인데도 한 명은 말을 잘하는데 한 명은 24개월이 다 되어도 엄마밖에 못하고 (사례 6).

애들 키우는 게 힘들어도 재미있고 다양한 경험을 하니까 다른 부모들한테 나름대로 자신 있게 경험들을 얘기해줄 수 있

지요 (사례 5).

다음으로 면접한 대부분의 다자녀가족들은 자녀양육태도상의 긍정적 변화라는 가족강점 속에 특히 부모로서의 정체감이 증가했음을 언급하였다. 이는 자녀가 셋 이상이 될 때의 부모로서의 정체감에 현저한 변화가 온다는 것을 의미하며,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애정이 깊어지고 성숙한 부모로서의 태도를 갖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를 낳고 키우면서 아 이제 진짜 내가 엄마구나 하는 생각이 엄마로서 정체감이 차지하는 부분이 커졌어요. 그리고 애들이 엄마를 필요로 하는 시기까지는 손을 놓지 않고 관리해주고 밀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례 2).

애가 둘 일 때만 해도 애들에게 간식을 만들어준다거나 모유수유를 길게 해주거나 아이의 빨래를 삶는다던가 그런 엄마의 도리를 제대로 못했어요. 지금은 그런 기본적인 배려를 애들한테 하고 좀 더 희생하는 부분도 늘어난 것 같아요. 애들이 많아 질수록 엄마로서의 태도가 마인드가 성숙해진 것 같아요 (사례 3).

진짜 내가 애 셋의 아빠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애 둘일 때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에요. 게다가 딸만 셋이다 보니 정말로 아빠노릇을 잘해야 겠다. 딸들을 잘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더 많아졌어요. 원래 애들을 좋아하지만 그래서 공부든 운동이든 뭐든 잘하게 만들고 싶은 욕심도 갖고 있어요 (사례 1).

원래 애들을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내 아이가 하나 둘씩 생기니까 귀해보였어요, 누구나 그렇겠지만 애들 넷이 진짜 예쁘고 소중하게 느껴져요. 제가 아버지가 안 계신데 내 아이들한테는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많아졌죠 (사례 11).

애들이 아빠를 좋아라하고 집에 오면 반가워하고 정말 뿌듯해요. 우리 집에서 내가 중요하고 아빠로 인정받는 것 같아서 (사례 10).

셋째 아이를 키우기 전에는 애들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지금에야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것도 느끼고 전보다 많이 안아주기도 하고 말은 못해도 큰 애와 둘째는 수화를 하니까 수화로라도 엄마아빠 마음을 표현하고 그러죠 (사례 17).

젊어서 둘째까지도 몰랐는데 셋이 되고 넷이 되니까 애들하고 어떻게 잘 놀아줄까 고민하게 되었어요. 특히 막내가 아들이고 보니까 부자간에 친하게 지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실 저는 아버지를 항상 어려워했고 그런 게 싫었어요. 아빠로서 애들하고 잘 지내고 외롭지 않게 해줘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례 7).

면접한 다자녀가족들이 가족강점으로 언급한 긍정적인 양육태도의 마지막 하위범주로는 특히 이전과는 달리 관대해지고 여유가 생긴 양육태도를 들 수 있다. 그러한 변화를 갖게 된 것은 자녀가 많아지면서 포용심이 많아진 부분도 있으며 이전의 양육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양육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게 되

거나 자녀들의 개인차에 대해 성찰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첫째보다는 둘째, 둘째보다는 셋째 이렇게 낳을수록 포용심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이들 키우는 것도 그렇고 생활에서도 여유를 갖게 되었어요. 내 방식대로 키워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 (사례 9).

남편이 자기가 애 셋 아빠가 되고나서 포용력이 많아졌대요. 외아들로 어머니가 떠받들어 키워서 자기중심적인 면이 강했는데 애 셋을 키우다보니 애들 행동에 대해 그냥 넘어가는 일도 많고 관대해졌대요. (사례 18).

큰 애 때는 무조건 많이 가르치려고 했는데 학습지도 여러 가지 하고 그런데 억지로 하는 게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오히려 막내는 안 시키니까 더 하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그래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그전보다 애들한테 좀 여유 있게 대해요. 그러니까 아이들 하고도 편하고 (사례 20).

애들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그런 경험이 많아지니까 유전자의 다양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세 아이들이 다 다르니까 그전에는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이 이론적이었지만 지금은 실제로 아이들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어요 (사례 13).

가족안정성 강화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특히 자녀가 셋 이상이 되면서 자녀가 둘 일 때와는 달리 결혼의

의미를 보다 영구적이며 운명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자녀가 둘일 때까지만 해도 심각한 부부갈등을 겪으면 극단적인 해결책으로 이혼을 생각하며 부부관계의 해소를 염두에 두었지만 자녀가 셋이 되면서는 결혼을 운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며 결혼과 가족의 안정을 위한 책임을 공유하려는 자세를 취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것은 개인적으로 다자녀가족이 된다는 것과 사회적으로 다자녀가족이 많아지는 현상이 우리 사회에서 결혼과 가족의 안정성을 증가시키는데 이바지 할 수 있음을 암시하며 이처럼 강화된 가족안정성이 곧 다자녀가족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둘 다 잘 만났다고 생각해요. 우리 같은 경우 잘못하면 깨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이 사람하고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해요 (사례 10).

재혼해서 낳은 아이까지 내 아이만 셋이고 남편도 아이가 둘이다 보니까 나나 그 사람이나 결혼을 거역할 수 없는 운명이라 생각하면서 살아요 (사례 19).

예전에는 남편과 갈등상황이 생기면 과국으로 치달아서 정말 애가 둘이라도 이혼까지도 생각했지만 이제 빼도 박도 못하니까 애들 봐서라도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혼 같은 최악의 상황은 생각하지 않게 되었어요. 애 둘 있을 때만 해도 왜 나만 희생해야 하나 억울한 생각이 들었는데 애가 셋이 되면서는 나도 힘들지만 남편도 힘들겠다. 이해하게 되고 남편에 대한 불만이 많이 누그러졌어요 (사례 2).

아이가 둘 일 때만 해도 남편과 사이가 안 좋으면 살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애가 셋이 되니까 남편하고 다투거나 싫을 때도 정말 도망갈 엄두가 안나요. 진짜 함께 오래 살아야 할 것 같고 신랑이 아플까 봐 겁이 나요. 신랑이 없으면 혼자서 애 셋을 키워야 하니까 끔찍하잖아요 (사례 21).

부부사이에 애기가 많아지고 긍정적인 대화가 많아지니까 그전에는 싸움을 하게 되면 이혼애기도 했었는데 그런 애기는 거의 하지 않아요 (사례 7).

이혼, 예전에 애가 둘일 때만 해도 시댁 식구들이랑 남편이랑 그런 갈등이 많았을 땐 이혼도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앞으로 그럴 일은 없을 거 같아요. 애가 넷인데 어떡하든 잘 살아봐야죠 (사례 8).

애들이 셋이 되면서 우리 부부가 서로 동병상련을 느낀다고 할까 서로 고생한다 불쌍히 여기면서 부부사이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일 때만 해도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애가 셋이다 보니까 집에서는 너무 복잡하니까 둘만의 시간을 따로 가지려고 더 노력하게 되었고 그게 좀 좋아졌어요 (사례 12).

인척관계의 호전

2010년 사회조사결과(통계청, 2010)에서 보면 배우자부모와의 만족도는 남성의 경우 56.1%가 만족이라고 답한 반면, 여성은 45.5%가 만족으로 우리 사회와 같이 형태만 핵가족이면서 관계나 사고의 면에서 확대가족적 지향이 강한 경우 인척관계는 가족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셋째 자녀의 출산과 같은 가족 사건은 부부만이 아니라 배우자 특히 기혼남성의 부모와 형제들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면접한 여성참여자들은 셋째아 출산으로 고부 갈등이나 시가식구들과의 관계가 좋아졌음을 언급하였다. 이 경우 셋째아가 반드시 남아는 아니었으며 요즘과 같은 저출산시대에 세 명의 자녀를 키우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임을 인척들이 이해해주면서 관계가 좋아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를 보고나서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많이 좋아졌어요. 시어머니가 예전에는 살림에 간섭하고 비난조로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런 게 없어졌어요. 요즘 애 셋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드냐고 위로도 하고 남편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주고 저를 많이 이해해주니까 저도 편해지고 시누이나 동서도 애 셋 키운다고 고생이 많다고 배려도 해주고 부러워도 하고 그러면서 관계가 많이 좋아졌어요 (사례 2).

셋째 낳고부터는 가까이 사는 시누들이 전보다 잔소리도 덜하고 간섭도 덜하고 애를 이해해주면서 잘해줘요. 지금은 잘 지내요 (사례 9).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다자녀가족 부부와 개인이 다자녀가족의 가족강점 즉 가족의 건강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자녀를 셋 이상 둔 30대와 40

대의 다자녀가족의 개인과 부부로 구성된 총 21명을 심층면접하여 근거이론적 접근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 번째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다자녀가족의 형성동기와 다자녀가족 이후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의도적인 출산계획을 가진 경우와 출산에 대해 계획이 없었거나 피임실패로 인해 다자녀가족이 된 경우 그리고 출산계획도 피임도 고려하지 않은 채 피임과 출산에 대한 방심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다자녀가족이 된 경우로 구분되었다. 그러므로 셋째아의 임신을 알게 된 순간 셋째아에 대한 출산계획을 갖고 있던 경우 안도감과 기쁨, 만족감과 성취감 등 매우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였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 불안과 걱정, 당황과 출산에 대한 고민, 우울증, 위기감, 자책감 등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경험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미 일어난 현실에 대해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수용하며 셋째 자녀에 대한 기대감도 가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셋째 자녀를 출산하여 다자녀가족 생활에 적응하기까지 크게 두 가지 조건이 작용하였는데 하나는 맥락적 조건이고 다른 하나는 중재적 조건이었다. 여기서 맥락적 조건은 연구 참여자들이 다자녀가족을 이루게 된 특정 맥락을 말하는 것으로 장남인 경우나 장남이 아니면서도 위의 두 자녀가 딸이어서 '남아출산에 대한 기대'가 높거나 참여자 개개 가족이 귀농이나 유학 등 '가족의 새로운 생활환경 변화'와 '다자녀 선호에 대한 개인적, 가족적 배경' 등이 출산결정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여성의 신체적 건강에 대한 자신감', '자녀출산과 양육을 위한 경제적, 대인

적 자원 확보' '부부의 높은 결혼만족도', '여성의 강한 출산 의지' 와 같은 조건들이 참여자들이 다자녀가족을 이루게 된 특정한 맥락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맥락적 조건보다 더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중재적 조건으로는 아이를 좋아하고 출산과 양육에 긍정적인 '개인적인 인성 특성'과 '개인의 직업적 상황' '출산과 양육에 대한 비경제적, 인간중심적인 가치관', '친정이나 시댁의 현실적인 지원' 등이 결정적으로 다자녀가족을 이루려는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다자녀가족으로서 건강성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다자녀가족 구성원으로서 어떠한 노력을 하는가를 살펴본 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다자녀가족으로 적응하기 위해 '주변의 자원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며 '부부간의 친밀감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였고, 아이가 셋 혹은 넷이 된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였다. 특히 자녀가 많아지면서 부모자신의 건강에 대한 의식이 높아져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실천적인 노력을 하였으며 '경제적인 생활안정'을 위해 직업에 더 충실하거나 여성의 일을 갖는 등 참여자들 각자의 수준에서 적극 노력하였다. 이와 함께 '가족중심적인 생활방식'으로 가족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특히 자녀수가 많아지면서 '좋은 부모역할에 대해 학습하고 실천' 하려고 하였다. 특히 남성과 여성을 포함한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부와 자녀간의 친밀감 증진'을 위한 노력을 언급하였다. 다자녀가족으로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 특히 직장이 있는 다자녀여성은 '효율적인 시간관

리'를 위한 노력을 중요한 전략의 하나로 꼽았다.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문제인 다자녀가족 부부 혹은 개인성원이 지각하는 다자녀가족의 가족으로서의 강점 혹은 건강성에 대해 살펴 본 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다자녀가족으로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 즉 전략을 경주한 결과로 현재의 가족상황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하고 나름대로 건강한 가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이 다자녀가족의 건강성 혹은 강점으로 언급한 공통적인 내용을 범주화할 때, '삶에 대한 강한 의욕'과 '행복한 가정에 대한 열망과 의지'가 강한 점, 그리고 '가정에 대한 강한 책임감'과 '개인적, 인간적 성장을 꼽을 수 있으며 다자녀로 인한 '행복감과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감' 그리고 '가족건강성 유지를 위한 다양한 실천', '부모 중압감의 감소', '부부간의 정서적, 신체적 친밀감과 강한 유대의식', '자녀들의 인성교육' '아버지의 가사와 양육행동 참여증가', '가정 현실의 긍정적 수용과 적응', '자녀양육태도상의 긍정적 변화' '가족안정성 강화' '인척관계의 호전' 등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다양한 형태(초혼, 재혼, 장애, 다문화, 농촌, 귀농가족)와 다양한 경제적 수준에 있는 다자녀가족 성원들은 비록 다자녀가족의 형성동기에서는 비의도적, 무계획적으로 출발한 경우가 많았으나 그 어느 참여자들도 다자녀가 된 상황을 후회하지 않았으며 다자녀가족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개인으로서 또한 부부로서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자신의 다자녀가족에 대해 결코 경제적인 가치로 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측

면에서 가족의 많은 강점, 건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자녀를 부모에게 고비용 저효율의 부담을 주는 비경제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만연되어 있으며, 주로 경제적인 유인책으로만 출산율을 높여보려는 경제적인 관점의 저출산대책이 난무하고 있다. 물론 현재 우리 사회에서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일은 단순히 개인적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혼수비용의 큰 몫을 차지하는 집값상승, 고용불안, 과다한 사교육비 지출, 일과 자녀양육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의 부족 등 사회경제적 요인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복잡한 문제이다. 그러나 정작 자녀를 셋 이상 둔 다자녀가족은 양육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보다는 오히려 다자녀로 인한 행복감이나 삶에 대한 강한 의욕 등과 같은 많은 정신적인 건강성을 보고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 사회 구성원이 특히 자녀가 많은 경우 누릴 수 있는 개인적, 가족적 삶에서의 행복과 만족감, 인생의 풍요로움에 좀 더 주목하며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 주는 본질적인 가치와 기쁨에 대해 성찰하며 긍정하는 정신적 자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

가족의 건강성은 곧 지역사회와 건강성과 문화적 건강성과 상호영향을 주고받음을 고려할 때(DeFrain & Asay, 2007),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물질적 풍요와 개인의 욕구충족을 우선시하며 이를 추구하는 사회에서 진정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성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녀출산과 양육을 물질주의적 가치의 관점에서만 생각하는 분위기를 지양하고, 다자녀가족

의 건강성에 주목하며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대해 보다 인간중심적이고 정신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전향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한편, 연구 참여자들은 경제적 수준이 높거나 낮거나 상관없이 각자의 상황과 현실에서 다자녀가족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다양한 개인적, 가족적 차원의 노력과 전략을 사용하였다. 현재 정부에서 다자녀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많은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연구 참여자들은 다자녀가족을 위한 정부지원을 크게 체감하지 못하였으며 출산장려금이나 육아지원금 이외에 필요로 하는 지원은 거의 기대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다자녀가족이 많은 가족강점을 지각한다고 해도 여전히 자녀양육과 관련된 현실적인 경제적 부담과 어려움은 상존한다. 그러므로 다양한 가족형태와 경제적 수준의 다자녀가족을 포함하는 보다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자녀가족 지원대책이 필요하며, 다자녀가족의 건강성을 사회적으로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제도, 정책들이 장기적이며 효과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특히 다자녀를 둔 여성의 경우 출산의 결정적 주체이자 가사와 양육의 주담당자로 때로는 가정의 경제적 책임까지 부담해야하는 면에서 남성에 비해 훨씬 많은 고충을 겪음을 고려할 때, 다자녀가족의 여성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보다 실제적인 지원과 양성평등적인 가정과 사회의 분위기의 정착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자녀가족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에 있어서 경제적 수준이 높으면 다자녀를 부의 상징으로 보는 반면, 저소득층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의 경우 혹은 다문화가족으로 다자녀가족인 경우 즉 사회에서 다소

소외되고 주변인적인 위치에 있는 가족이 자녀를 많이 두는 것을 문제가 많은 것으로 간주하여 ‘돈도 없으면서’ 혹은 ‘키울 자격도 없으면서 애만 많이 낳는다’ 는 식의 이중기준의 부정적이고 차별적인 시선을 거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아이가 많아서 너무 좋고 행복하는데 주위 사람들이 뭐라 해요. 이런 농촌에서 돈도 없으면서 애를 많이 낳아 어떻게 키우려고 하냐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속상해요.’ ‘엄마아빠가 장애인데 애를 셋이나 낳았다고 별로 안 좋게들 봐요. 우리 가족끼리는 잘 지내고 정말 좋은데...’ 연구 참여자들이 했던 이러한 이야기를 되새겨볼 때 다자녀가족의 상황과 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별적이고 배제적인 시각보다는 어떠한 형태나 계층의 다자녀가족이든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행복과 안정성을 높이는 공로자로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다자녀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력 제고를 위한 경제적 유인책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자녀출산과 양육 자체가 주는 결코 계량화할 수 없는 내면적이고 정신적인 행복의 의미와 건강한 가족의 중요성 특히 다자녀가족의 강점, 건강한 다자녀가족의 특성 등에 대한 교육이 예비부부, 예비부모는 물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내용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자녀가족이 지각하는 가족강점에 관한 본 연구는 원래 부부를 대상으로 남녀간의 가족강점 지각에서의 차이도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면접과정상의 어려움으로 부부와 개인 참여자를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그쳤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다자녀가족의 남성들이

지각하는 가족강점에 대해 보다 집중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다자녀가족의 성원인 아동, 청소년 혹은 성인 자녀들의 입장에서 지각하는 다자녀가족의 강점에 대해서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동일한 명칭이나 기준으로 유형화되는 가족집단내에서조차 다양한 가족이 존재하므로 내부자의 관점을 중시하는 질적 접근으로 다양한 가족에 대해 가족강점의 시각에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대희 (2003).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용은 (2003). 자녀가치에 대한 세대 간의 유사성과 상이성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정숙 (2006). 저출산 현상에 대한 한 자녀 및 다자녀 가정 어머니의 인식탐색.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은 (2006). 가족건강성이 대학생의 자아분화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효정 (2008).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가족의 건강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대한민국정부 (2006). 2006-2010 제 1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새로마지플랜 2010.
- 문숙재, 양정선, 이성은 (2007). 다자녀 가족의 인적자본 투자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6), 43 -57.
- 박선이 (2006). 초기 청소년이 인터넷 게임사용에 따른 자아 상태와 가족건강성.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연, 도현심 (1993). 성, 형제 수, 출생순위 및 성구성에 따른 아동의 사회성. 아동학회지, 14(2), 35-48.
- 박영애, 정옥분 (1996).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연구, 아동학회지, 17(1), 190-212.
- 박의현 (2006). 치매노인 주부양자가 인식하는 가족건강성이 부양부담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효순 (2004). 정신질환자가족의 가족건강성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효과성 분석 및 우수정책 개발 촉진방안.
- 송민경 (2000). 형제·자매의 구성변인에 따른 유아의 자아개념 및 도덕 판단력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송호경 (2004). 외동이와 다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경림 역 (2001). 근거이론의 단계 (Strauss,A., & Corbin,J. 저). 서울:현문사.
- 안선희, 김선영 (2004). 가족의 건강성과 양육효능감 및 유아의 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2(12), 219-230.
- 안인영 (2005).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가족건강성,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과 우울과의 상관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순미, 유영주, 유계숙 (2004). 가족건강성, 자
아존중감, 부부문제와 농촌부부의 결혼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8(3), 31-49.
- 양주애 (2005). 가족건강성 및 자아탄력성과 대
학생학 적응의 관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어은주 (1996). 한국도시가족의 건강성 및 관련
변인 연구-자녀 교육기 가족의 주부를 중심
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어은주, 유영주 (1995). 가족의 건강도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교
육학회지, 15(4), 269-285.
- 오명희, 장윤옥 (2007) 가족건강성과 부모의
학업기대유형에 따른 청소년 학습동기의
차이.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0(4), 57-74.
- 오정옥 (1999). 가족의 건강성과 대학생의 자
아존중감과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4(2),
153-172.
- 유영주 (2004). 가족강화를 위한 한국형 가족
건강성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
관계학회지, 9(2), 119-151.
- 유영주, 이인수, 김순기, 홍성례, 최희진 (2009).
건강가족의 이해. 서울: 교문사.
- 윤연정, 이미숙 (2007). 가족건강성이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지, 25(2), 105-122.
- 이삼식, 유계숙, 윤홍식, 최효진 (2008). 저 출
산 대응정책의 효과성 평가모형에 관한 연
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소영 (2008). 가족건강성이 결혼불안정성에 미
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 이현정, 조성연 (2002). 형제·자매관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 아동학회지, 23(3),
139-148.
- 장보현, 유계숙 (2006). 저출산 대책의 가족영
향평가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6),
161-176.
- 장혜경 (2007). 저출산과 가족정책. 가족법연구,
21(1), 91-106.
- 저출산, 고령화 원인은 집값급등, 고용불안
(2010.12.23). 서울경제신문, p. 2.
- 전귀연, 임주영 (2006). 형제관계. 서울:신정.
- 전서영, 박정윤, 김양희 (2008). 기혼남녀의
일·가족 갈등에 따른 가족건강성의 차이
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3),
59-79.
- 정혜선 (2006).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따른 자
녀수와 출산의지 및 출산장려 정책 요구분
석.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정혜 (2004). 주말부부의 가족스트레스, 대처
전략 및 가족건강성 연구. 한국가정관리학
회지, 33(2), 69-83.
- _____ (2006). 맞벌이교사들의 가족스트레스,
대처전략 및 가족건강성. 한국가정과교육
학회지, 18(4), 1-11.
- 통계청 (2010). 2009년 출생통계주요결과.
- _____ (2010). 2010년 사회조사결과.
- _____ (2010). 2010년 생활시간요약표.
- 한영숙 (2006). 아동이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 및
부모의 양육태도와 행동문제간의 관계연구: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한남대학
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인실 (2004). 가족건강성과 중장년기 성인남녀

- 의 자아정체감.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Baumgardner, S. R., & Crothers, M. K. (2009). *Positive Psychology*. 안신호 외 역. 긍정심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 Compton, W. C. (2005). *An Introduction to Positive Psychology*. 서은국, 성민선, 김진주 역 (2007), 긍정심리학입문. 서울: 박학사.
- Creswell, J. W. (1998).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Tradition*. 조홍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역 (2007),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전통. 서울: 학지사.
- DeFrain, J. & Assay, S. M. (2007). A Strengths-Based Conceptu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Families World-Wide. *Marriage & Family Review*, 41(3-4), 447-465.
- DeFrain, J., & Stinnett, N. (2002). *Family Strengths*. In J. J. Ponwetti et al.(Eds.),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marriage and family* (2nd ed.). New York: Macmillan Reference Group.
- Handel, G. (1996) Family worlds and qualitative family research. *Marriage and Family Review*, 24. 355-348.
- Olson, D. H., & DeFrain, J. (2006). *Marriages & Familie: Intimacy, Diversity, and Strengths*. NY; The McGraw-Hill.
- Sanders, R. (2004). *Sibling Relationships: Theory and Issues for Practice*. NY: Palgrave Macmillian.
- Stake, R. (1995). *The art of case study research*. Thousand Oaks. CA : Sage.
- Strauss, A., & Corbin, J.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CA: Sage.
- 1차 원고접수 : 2011. 1. 7
수정원고접수 : 2011. 2. 18
최종게재결정 : 2011. 3. 2

A Study on Multi-child Families' Perceptions of Family Strengths

Lim, Choonhee

Dep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Kunsa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sought to investigate the family strength levels of multi-child families based on the perception of couples and individuals having three or more children. Multi-child families can be seen as actual contributors to the ongoing problem of the low birth rate in South Korea. 21 a multi-child family members, defined as adults having three or more children, were interviewed in-depth for the purposes of this study. The data thus collected were analyzed through categorization by qualitative analysis, based on Grounded theory. The main results of this investigation revealed that the participants did their utmost to maintain or reinforce their family strengths by means of 'positive thinking', 'strong marital solidarity', 'family time and activity', 'effective time management', 'learning and practice of good parenting'. This study further revealed that couples and individuals having three or more children perceived family strengths positively both as a family and as a couple in a variety of ways and made a greater effort to maintain their family strengths. Regardless of social economic family status and regardless of family type, the multi-child family members in this study expressed satisfaction and happiness which they attributed to having three or more children.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perceived the strengths of multi-child family in many ways as follows: 'Happiness from children', 'satisfaction with family life', 'decrease of parenting role stress'. 'closeness of marital relationship', 'family solidarity'. Respondents also perceived a great many strengths derived from their role as a couple in multi-child families, ranging from 'strong couple solidarity' to 'appreciation and trust in one's partner,' 'marital stability', and a 'couple-oriented life style'. Couples and individuals reported a great many positive changes after having three or more children, including an 'increase in family responsibility and commitment', 'positive self-concept' and 'mental stability'. In contemporary Korean society, people tend to think that childbearing and child-rearing is a very difficult, distressing period which is also a major drain on both time and money so having three or more children has become an unwelcoming burden. Additionally, there is a strong tendency to view childbearing and child-rearing in mostly economic terms. However, unexpectedly, families having three or more children exhibited very positive perceptions in relation to their family life and reported a great many family strengths as a result.

Key words : multi-child family, family strengths, strong family, strengths of multi-child family